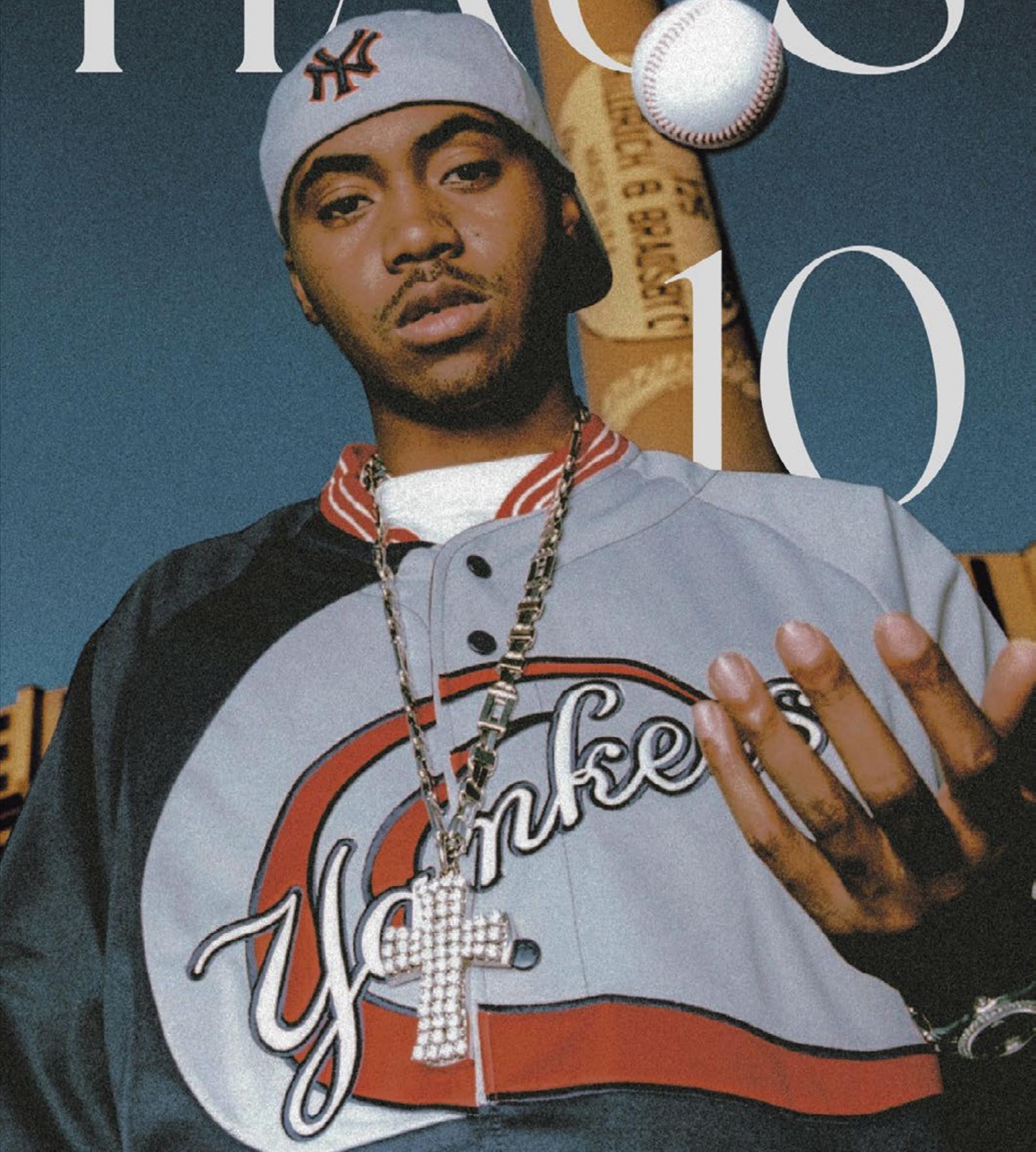


WORLD/

HAUS





월드 하우스 오브 매터 10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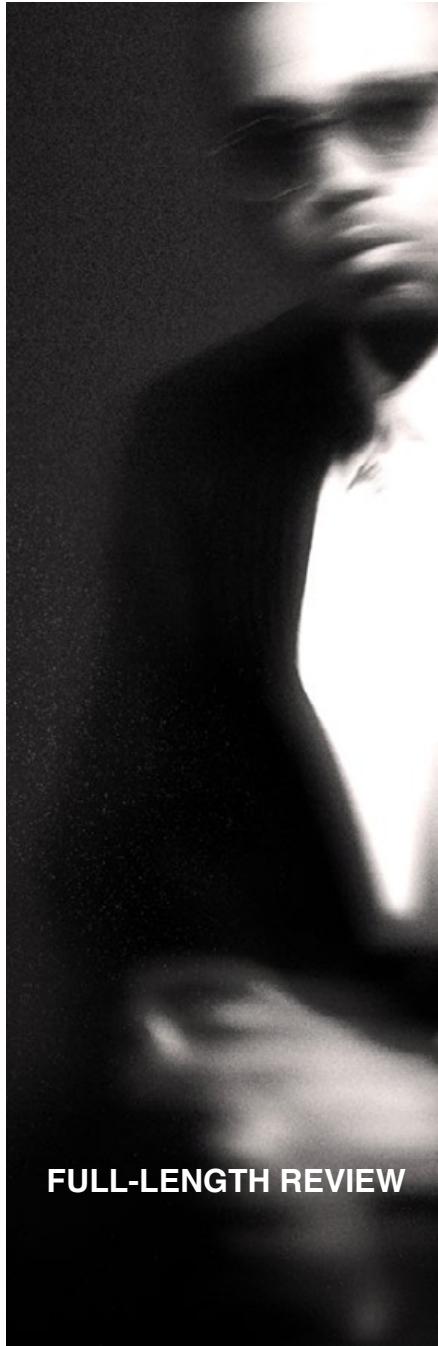
W/HOM

CONTENTS

ISSUE #003



RECENTLY REALESED



FULL-LENGTH REVIEW



CLASSIC ALBUM

W/HOM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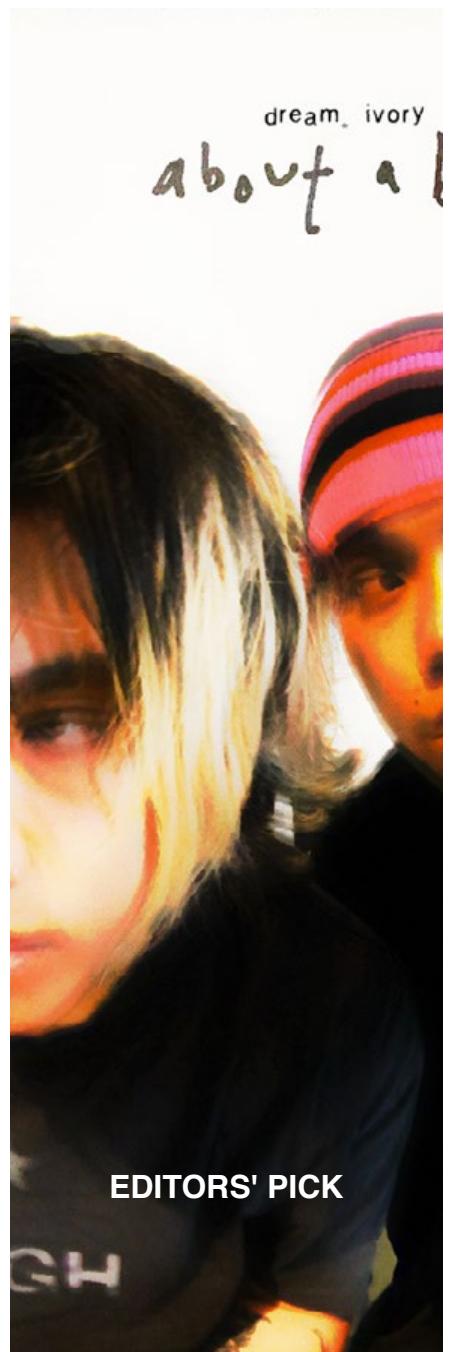
ISSUE #003



FREE TOPIC



ZOOMTERVIEW



EDITORS' PICK

Recently Released.

23.09.01~23.09.30





TEC Lil Tecca

2023.09.22
by Editor 45

릴 테카(Lil Tecca)는 싱글 "Ransom"의 성공 이후 자신의 앨범과 Sofaygo의 앨범을 통해 프로듀싱 실력을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그 역시 트랩퍼 특유의 악습인 자기복제를 피해 갈 수 없었다. 릴테카는 자신만의 무드와 장르성을 지니고 있지만 더 이상 영역을 확장하거나 발전할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받았다. 그렇게 촉망받던 루키는 한순간에 여리 리스너에게 조금씩 잊혀갔다.

결국 자신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는 말을 반박하듯이 이번 앨범을 통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동안 자신의 향을 담을 수 있는 장르의 폭이 좁았지만, 이번 앨범은 여러 장르를 폭넓게 시도함과 동시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플럭앤비, 레이지, 아프로비트, 댄스홀 등을 선보였다.

각 트랙만의 개성이 강해 앨범을 듣는데 지겹지 않았고, 아무리 튜는 트랙이 있더라도 릴 테카만의 장르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넘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적절한 선에서 화려하게 어울려 유기성 또한 향상된다.

전체적인 느낌은 어쩌면 릴 테카가 앞으로 트랩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물이 될 거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번 앨범을 통해 릴 테카는 수준급으로 성장하였고, 다시 한번 프로듀서계의 빛나는 루키로 거듭나게 된 거 같다.



Bad News Blu & Real Bad 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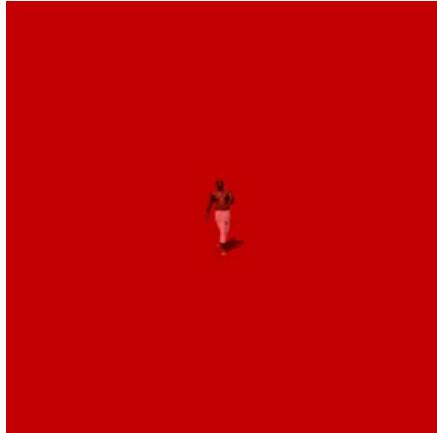
2023.09.01
by Editor 앞날

래퍼 블루(Blu)와 프로듀서 리얼 배드 맨(Real Bad man)의 첫 정규 콜라보 <Bad News>가 등장했다. 앨범 제목부터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이번 앨범은 과거의 올드스쿨의 작법을 재현해 악당을 자처하며 배틀 랩으로 불같이 나쁜 소식을 전한다.

우선 Smoke DZA, Boldy James 등 수많은 인사들에 이어 리얼 배드 맨이 블루와 작업하며 제공한 비트는 블루가 원활하게 랩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감미롭게 활용하는 현악기는 여전한 그의 장기였으나, 본작은 과거 우탱을 연상시키는 로파이하며 거칠게 다듬은 베이스와 종종 들리는 침명크 샘플의 활용이 돋보이기에 한층 더 흥미롭다. 그의 비트 위에서 랩 하는 블루의 기량이야, 사실 2007년 <Below The Heavens>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작품들로 증명해 왔기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특히 블루의 퍼포먼스는 여전히 당차고 자신에 넘치지만 그의 리릭시즘 덕분에 설득력이 막대하다. 또, 여러 작품을 내며 다양한 비트를 섭렵한 내공 덕분에 비트에서 맞는 톤이나 색깔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모습 역시 대단하다고 평할 수 있다. 이번 앨범 역시 “훌륭한 비트와 훌륭한 랩은 좋은 작품을 낸다”는 쉬운 공식을 궤적 유효히 통했다.

만약 올드 힙합의 팬이라면 거칠고 둔탁한 드럼 비트와 청명한 건반 소리에 유려히 수놓아 짠 라임들에 걸맞은 명료한 랩을 싫어할 수 있을까? 적어도 나는 그들이 앞으로도 들려줄 나쁜 소식을 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다.



The Love Album: Off the Grid

Puff Daddy

2023.09.15
by Editor Indie Aisle

퍼프 대디(Puff Daddy)라는 프로듀서가 가진 역량의 바램이 이 붉은빛 앨범의 시사점이 된다면, 나는 설령 그것이 싸구려 언사들로 점철된 삼류 감상평일지라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 뻔하다. 유행을 읽는 시각이 아무리 빠르고 세련되었다고 해도, ‘사랑’이라는 애매모호한 관념의 공산품은 현대 예술성의 열반엔 눈곱만큼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팝적인 유흥과 너저분한 컨템퍼러리 알앤비의 여로, 그 가운데엔 결론도 하고픈 말도 결여된 ‘사랑’만이 시큰둥하게 놓여 있을 뿐이다. 달콤하고 듣기는 좋다만, 2020년대의 청자들은 맹목적 ‘사랑’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기엔 이미 너무나 광폭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보면 퍼프 대디는 <Ready To Die>와 같은 본래의 위상을 점점 좀먹는 듯한 행보를 여태껏 보여왔다. 거장들의 사망처럼 사라져가는 영광들, 그러한 광륜의 쇠퇴는 퍼프 대디의 달콤한 신스음으로 가릴 수 없는 시대의 구멍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앨범의 무의미한 달콤함 마디 마디마다 남는 것은 맹목적 음악에 대한 분노보다는 시절의 회한과 안타까움에 가깝다. 앨범 자체적으로는 흔하고 듣기 좋은 대중적 사운드를 지향하지만, 난 어쩌면 앨범의 주체가 ‘퍼프 대디’라는 전설적 이름에 있기에 더욱 부정적으로 다가오는지도 모르겠다.

퍼프 대디의 컨템퍼러리 알앤비 앨범 <The Love Album: Off The Grid>는 이전의 예술적 성과나 골든 에라의 연대기를 건조하고 맹목적인 팝 넘버들 위에서 아슬히 흔들리게 한다. 이토록 무색무취일 수가-라는 무언의 탄식이 앨범의 종료하는 붉은 허 곁에 회돈다.



Nostalgia

Rod Wave, Wet

2023.09.15
by Editor ryuzimoto

보통 한 명의 아티스트를 거론할 땐 몇 가지 키워드로 대표되는 이미지가 존재한다. 그것을 결정짓는 요소는 음악은 물론 외모나 아웃핏으로 자리 잡은 캐릭터 등 다양하다. 현 힙합씬에서 이 같은 키워드 비주얼라이징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 존재하니 바로 로드 웨이브(Rod Wave)이다. 그를 이야기를 할 땐 귀여운 외모와 푸근한 덩치에서 발산되는 걸출한 싱잉이 가장 먼저 뇌리에 직관적으로 각인된다. 하지만 가시적인 이미지와 반대로 그의 노랫말에는 분명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아픔, 이는 로드 웨이브의 가사를 꿰뚫는 분명한 주제이다. 힙합과 팝 알앤비를 적절하게 넘나들며 그만의 페인 싱잉으로 아픔을 진술하게 이야기한다 이 같은 스타일은 4장의 정규앨범을 발매하면서 어느덧 굳건하게 자리 잡았고, 9월 발매된 <Nostalgia>에서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뚜렷한 목적지가 아닌 지금까지의 여정을 담은 <Nostalgia>는 주된 사운드로 애틀랜타 향취가 느껴지는 트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어쿠스틱 기타, 가스펠, 서정적인 피아노 등의 소스를 같이 말아내면서 전작들과 유사한 공식을 자아낸다. 이처럼 일관성있는 스탠스는 종종 환영받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물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의 메시지는 설득력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배치된 동일한 프로덕션은 긴 볼륨 내내 무미건조하고 지루하다. 자연스럽게 보컬도 퇴색되며 아쉬움만이 남는다.

2020년 XXL Freshman Class로 선정된 로드 웨이브, 그가 더 이상 도태된 퍼포먼스를 보여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현재 로드 웨이브에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Victor

Vic Mensa

2023.09.15
by Editor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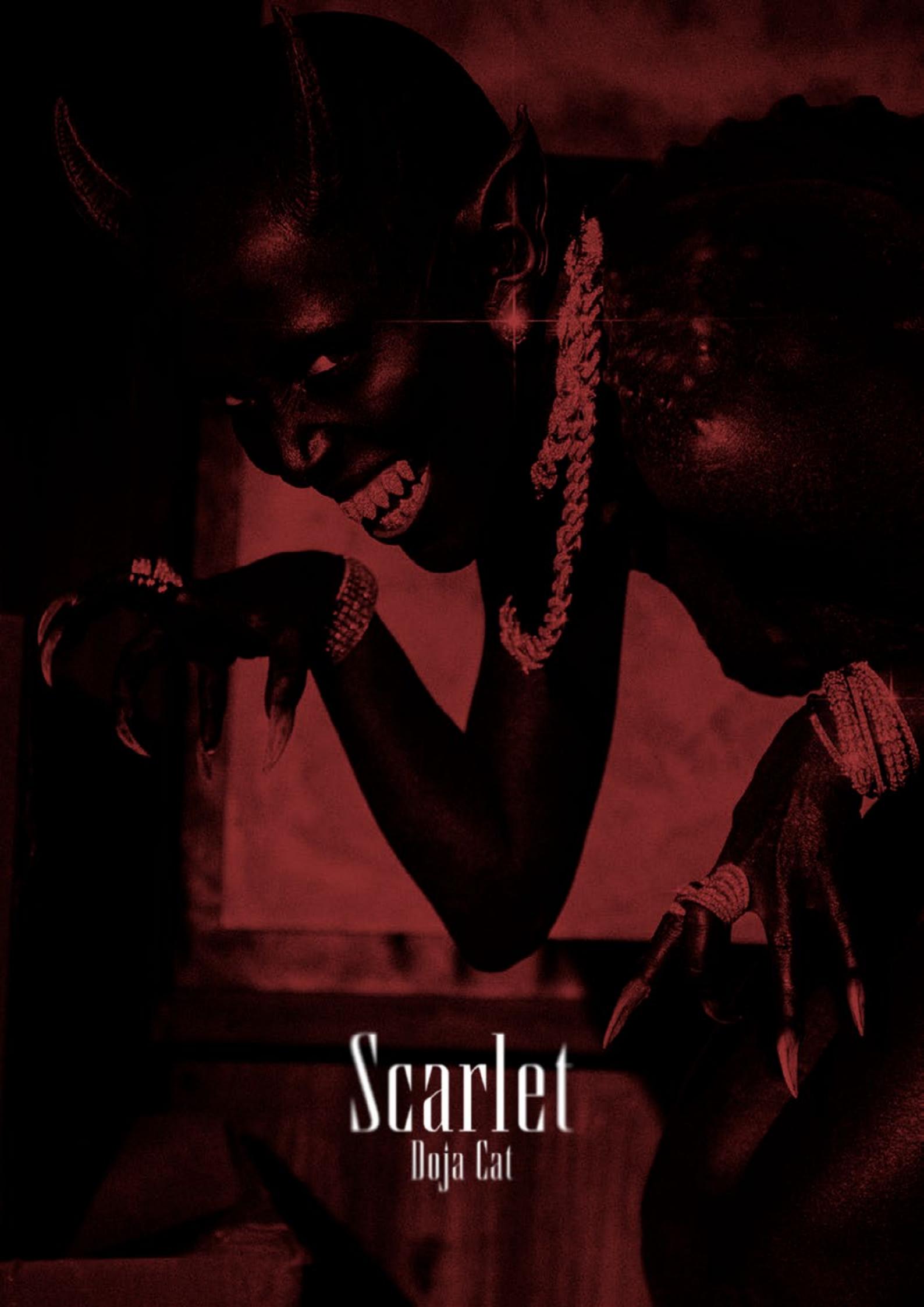
2013년 찬스 더 래퍼 (Chance The Rapper)의 믹스테이프 <Acid Rap>에 피처링을 한 풋풋했던 빅 멘사 (Vic Mensa)의 시절은 가고 어느덧 30대의 나이에 접어든 베테랑 래퍼다. 이제 그는 대표적인 시카고 래퍼 중 한 명으로 꼽힐 정도로 네임드가 됐다.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갔더라도 방심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앨범의 전체를 관통한다. 그는 아직도 처음과 같이 성장을 갈망하며 지체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것들과 복잡한 심정들을 곡들을 컨서스하게 써 내려가는데, 특이한 점이라면 가사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만큼의 박진감 넘치는 트랩 위에 컨서스한 가사를 썼다는 것이다. 또 투박한 트랩 비트 위에 묵직묵직하게 잽을 날리듯이 랩을 톡톡 뺏어내는데 랩에 마치 감정이입이 된 거 같았다. 반대로 중반부를 지나 후반부에 오면 힘을 빼고 차분히 랩을 하는 모습에서 상반된 스타일을 보여줬다. 이외에 가스펠을 필두로 진행하면서 신에 대한 예찬과 앞으로의 소망을 담는다.

전체적으로 인상 깊게 듣지는 않았지만 가사적인 것이나 믿고 듣는 빅 멘사의 랩, 투박한 트랩 비트 위에 컨서스랩 등으로 수작급은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Full-Length
Album Review



A dark, moody portrait of Doja Cat. She is shown from the waist up, wearing a black, ruffled, one-shoulder dress. Her hands are raised, fingers spread, in front of her chest. She is adorned with several thick, shiny gold chains, including a large hoop earring, a necklace with a large heart-shaped pendant, and bracelets on both wrists. The background is dark and out of focus, creating a dramatic effect.

Scarlet

Doja Cat



Scarlet

Doja Cat

1. Paint the Town Red	5. Ouchies	11. Can't Wait	17. WYM Freestyle
6. 97	12. Often		
2. Demons	7. Gun	13. Love Life	
3. Wet Vagina	8. Go Off	14. Skull And Bones	
4. Fuck The Girls (FTG)	9. Shutcho	15. Attention	
	10. Agora Hills	16. Balut	

분노를 머금고 그녀가 돌아왔다.

Editor EastBrit

기존의 팝적인 색을 버리고 붐뱁을 시도하겠다던 도자 캣(Doja Cat). 앨범의 컨셉인지는 몰라도 최근 그녀는 자신의 팬덤 키튼즈(Kittenz)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며 25만 명 가량의 팔로워를 잃었다. 과연 분노 바이럴은 성공적이었나?

앨범 홍보에 앞서서 본인 디스코그래피의 커버들을 빽빽이 물들이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인 그녀의 앨범 <Scarlet>은 그 이름답게 적색특성이다.

선공개 싱글인 “Paint the Town Red”에 대해 필자는 과한 틱톡 바이럴로 순위권에 진입하게 된 트랙이라고 느낀다. 단순 반복적인 훠, 그리고 내용의 측면으로 보아도 도자 캣 본인의 우월감, 헤이터들을 이겨내고 성공했다는 분노와 도취감이 주제이다. 최근 사태를 통해 스스로 헤이터를 늘리고는 자신에게 과몰입하는 인간들이 싫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과연 득이 되는가 생각해 봄야 할 일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트랙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름과 동시에 스포티파이 역대 여성 래퍼 중 가장 빠르게 1억 스트리밍 달성을, 여러 미디어에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다음 트랙 “Demons”는 시끄럽기만 한 혹 때문에 오히려 그 사운드가 아깝다는 생각이 듈다.



앨범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자. 그녀의 스타일 변화 예고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초반부에는 확실히 강력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분노를 내뿜는데 그 중 제목은 양산형 여성 래퍼 같아 별로인 “Wet Vagina”의 유사 뉴 메탈 사운드는 나름 신선하게 다가온다. “Fuck The Girls (FTG)”는 Cardi B를 연상시키는 높은 수위의 가사도 보이나, 정작 그녀의 것만큼 강한 흥이 부재한다. “Ouches”의 인트로는 몸을 들썩이게 만들 정도로 흥이 나지만 그 기대는 1초도 가지 않으며 첫 벌스부터 맥이 빠져버린다.

“97”은 사운드적으로 여유를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울감까지 느껴지는 준수한 트랙이었지만, 후로는 다시 무색무취한 트랙 배치가 반복될 뿐이다. 초반에 보여준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Agora Hills”은 도자 캣이 제일 잘하는 스타일로 회귀하며 강렬한 신스가 귀를 사로잡는다. “Love Life”는 마치 Kanye West의 “I Love Kanye”를 연상케 할 정도로 간단한 가사가 특징이다. ‘I Love~’ 류의 가사만이 반복되는데, 스킷이 아니고 엄연히 한 곡이라는 점에서 지루함을 유발한다.

필자가 이 앨범에서 제일 마음에 든 곡을 고르자면 “Attention”인데 도자 캣이 이전 앨범들의 스타일도 적절히 고수하면서 랩도 잘 배치했기에 나쁘지 않은 트랙이라는 생각이 든다. 중간의 베이스 리프도 과하지 않고 트랙의 무드에 녹아든다. 제일의 강점은 역시 투박한 드럼 사운드로, 그녀가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려 한다는 걸 제일 명확하게 보여준다.

마지막 두 트랙인 “Balut”과 “WYM Freestyle”은 앨범이 끝난 뒤의 디럭스 트랙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 중 “Balut”이 일품이다. “Attention”에서 마무리되어 숨을 고르다 한 차례 더 청중에게 긴장을 주며 여운을 남긴다. 반면 “WYM Freestyle”은 후반부의 무드에도 어울리지 않고 영화가 끝난 뒤 의문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쿠키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다음 시리즈는 나오지 않는, 무의미한 쿠키 영상 말이다.

종합적으로 도자 캣의 <Scarlet>은 ‘나 잘났어’, ‘니들이 뭘 할 수 있어, 난 슈퍼스타인데’로 정리되는 주제를 담으며, 어린아이의 투정 수준의 가사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당연히 헤이터가 없지는 않겠지만 누가 도자 캣을 그토록 폄하했는가? 키튼즈의 충성도가 미약한 수준이었는가? 전혀 아니다. 이 앨범만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팬덤을 뒤돌게 만들고 자기 사랑만을 이어가는 신세라니. 결과적으로 보면 “Paint The Town Red”가 각 매체에 바이럴 되어 큰 인기를 입은 것도 사실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스트리밍 시대가 아니었다면 지금보다도 더 평가가 낮아질 앨범으로 보인다.



WE
BUY
DIABETIC
TEST
STRIPS

Armand Hammer

billy woods
E L U C I D



We Buy Diabetic Test Strips

Armand Hammer

- | | | |
|---|---------------------------------|--------------------------------|
| 1. Landlines | 5. I Keep A Mirror In My Pocket | 11. Empire BLVD |
| 2. Woke Up and Asked Siri How I'm
Gonna Die | 6. Trauma Mic | 12. Don't Lose Your Job |
| 3. The Flexible Unreliability Of Time &
Memory | 7. Niggardly (Blocked Call) | 13. Supermooned |
| 4. When It Doesn't Start With A Kiss | 8. The Gods Must Be Crazy | 14. Switchboard |
| | 9. Y'all Can't Stand Right Here | 15. The Key Is Under the Mat |
| | 10. Total Recall | |

Editor 온암

지난 몇 년 간 앱스트랙 힙합 신에서 가장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래퍼를 꼽으라면 아마 빌리 우즈(billy woods)의 이름이 첫 번째로 나올 것이다. 올해 상반기 Kenny Segal과의 두 번째 합작 <Maps>가 만장일치로 매니아들과 평론지의 찬사를 받았던 만큼, 자연스레 엘루시드(E L U C I D)와의 듀오인 아만드 해머(Armand Hammer) 또한 지대한 주목을 받고 있는 형세이다. The Alchemist와의 합작이었던 전작 <Haram>이 큰 호평을 얻었기에 그들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날이 갈 수록 증대되었고, 앨범의 실제 완성도를 확인한 바 본인들도 그 사실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전의 작업과 다소 상이한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힌 만큼 본작은 아만드 해머의 커리어를 통틀어서도 가장 다양하며 능력 있는 프로듀서들을 동원한다. 때문에 <We Buy Diabetic Test Strips>는 그동안 아만드 해머가 시도한 모든 스타일의 집합체 같으면서도 동시에 새롭게 느껴진다. 규칙성과 혼돈 사이에서 아슬한 곡예를 이어가며 앱스트랙과 익스페리멘탈의 묘미를 선사하는 앨범의 프로덕션은 단일 프로듀서를 가진 <Haram>과 대조했을 때 더욱 흥미로운 감상을 전달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음압의 공기에서 엠비언트와 인더스트리얼의 사운드 소스들이 불규칙적으로 행위하며 거시적으로 하나의 기류를 형성하는 아만드 해머의 음악은 추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그 접근법에서 난해함을 줄인다.

음악 내적으로, 동시에 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지점은 익스페리멘탈 힙합의 또 다른 거성 JPEGMAFIA가 선공개 싱글 “Woke Up and Asked Siri How I’m Gonna Die”를 포함한 네 곡에 프로듀서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REBOUND!”에서 아만드 해머를 디스하는 등 불편한 기류를 이어가던 두 아티스트의 비프가 마침내 종결되는 순간이었다. <All My Heroes Are Cornballs> 시기를 연상케 하는 몽환적인 공간감을 잔뜩 내포한 비트 위 JPEGMAFIA가 아닌 아만드 해머의 래핑이 등장하는 순간의 쾌감은 그들의 불화 경력과 맞물리며 청자들로 하여금 다층적인 감상을 유도케 한다.

장르 내 정평이 난 프로듀서들의 활약은 비단 그 즈음에서 그치지 않는다. El-P가 프로듀싱한 “The Gods Must Be Crazy”는 Run The Jewels의 데모곡을 아만드 해머 버전으로 편곡한 것만 같은 감상을 주며, Kenny Segal이 프로듀싱한 “Total Recall”은 <Maps>에 수록되어도 손색이 없는 추상적 성격을 자랑한다. Black Noi\$e와 Jeff Markey가 프로듀싱한 Earl Sweatshirt 타입의 “Don’t Lose Your Job”은 매니아들이 재즈 기반의 앱스트랙 힙합을 사랑하는 이유를 낭만적으로 상기한다.

그러나 이 중 그 어떤 트랙도 앨범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Trauma Mic”的 광포함을 능가하지 못한다. 가장 앞서 싱글로 공개되었음에도 여전히 충격을 주는 DJ Haram의 파괴적인 비트 위 거침없이 랩을 하는 엘루시드와 빌리 우즈는 그 모든 창조적 음향 현상을 패권으로 다스리며 그들이 장르의 최전선에 서있음을 선포한다. 앨범에서 가장 중량화된 드럼을 지닌 ‘Supermooned’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다양성을 총체하는 무게중심은 앨범 전체에 대한 연출을 대표하는 듀오의 래핑에 있다. 둘 중 상대적으로 더 훌륭한 솔로 커리어를 축적한 빌리 우즈에 대한 리스너들의 조명도가 더 크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엘루시드의 퍼포먼스가 더 인상적이었다. 전체적으로 부유하는 듯한 질감의 사운드 톤을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엘루시드의 저음은 앨범에 바람직한 공격성을 더하고, 특히 DJ Haram이 프로듀싱한 트랙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하나 같이 은유적이고 난해한 곡의 제목들처럼 빌리 우즈와 엘루시드는 문화적 레퍼런스와 수사적인 문장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사회적 빈곤과 개인적 고뇌에 대한 논점을 제시한다. 동시에 랩만이 표현해낼 수 있는 청각적 쾌감과 복합적인 리듬의 이점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그들의 실력은 과연 베테랑이라 할 만하다.

시간이 지날 수록 거듭해 발전하는 아티스트는 드물다. 특히 음악적 본질이 철저히 ‘반복’에 위치해있는 힙합의 경우 더욱 그렇다. 하지만 아만드 해머는 상투적인 성공의 길 대신 철저히 추상화된 미로에 진입했고, 예술가로서 생존하기 위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시간만 충분히 흐르면 추상 힙합의 또 다른 명반으로 평가받을 이 앨범을 듣는 순간, 난 이들이 진정 음악성만을 추구하는 아티스트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

Lil Peep

Lil Peep · ILOVEMAKONENN

DIAMONDS





DIAMONDS

Lil Peep · ILOVEMAKONNEN

1. Smokin'	7. November	12. Rent To Pay	18. Cry Baby 2
2. IDGAF 2	8. Guiltiness	13. I Sell Cocaine	19. Hocus Pocus
3. Favorite Drug	9. Prove My Love	14. That Juice	20. Cruise With You
4. Hypnotized	10. Sidelines	15. Twisted	
5. Ballin'	11. I've Been	16. Nasty Names	21. Diamond Piano Freestyle (Outro)
6. Really Loving You	Waiting - OG Version	17. Kiss Me	

Editor SongChicho

릴 펫(Lil Peep)은 사후앨범이 발매된 아티스트 중에서도 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레이블이었던 First Access이 펫에게 마약을 사용할 것을 종용했고, 사건 당시에도 미흡한 대처를 보였다며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송사 끝에 First Access와 유가족측은 올해 초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의 조건은 기밀이지만, 유가족 측은 “펫의 음악이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입장을 내놓아 앞으로 펫의 음악은 그의 가족들이 돌볼 예정이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앨범도 그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펫의 파트너 아이러브마코넨(iLOVEMAKONNEN)은 최근 인터뷰에서 2020년 당시 미완성에 부쳐 두었던 이 앨범이 통째로 유출되는 사건을 겪고 모든 것을 잊은 듯한 감정을 느껴 발매하지 않겠다 마음먹었지만, 음악의 통제권을 되찾아 온 펫의 어머니가 이 앨범을 만들었던 팀을 다시 불러 모아 이 앨범을 발매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노력 끝에 발매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앨범을 마무리하기 위해 핍이 커리어를 보내는 내내 곁을 지키던 Smokeasac과 GothBoiClique의 프로듀서 Fish Narc가 초대되었는데, 이들은 이 앨범을 자신들의 색으로 뒤틀고 바꾸는 대신 기존의 결과물을 리마스터에 가깝게 완성해, 온전히는 아닐지라도 핍과 마코넨의 본래 의도대로 세상에 공개될 수 있었다.

이 앨범의 주인인 핍과 마코넨은 늘 그랬듯이 좋은 합을 보여주었다.

퀴어 아티스트이자 아웃사이더 성향을 줄곧 내비치던 둘이기에, 더욱 같은 감성을 공유하고 있었고 (다만 핍의 성적 지향에 대해선 불필요한 논쟁이 있는 편이다.) 미성의 마코넨과 거친 느낌의 핍의 보컬이 번갈아 나오며, 80분이 넘어가는 러닝타임의 이 앨범이 지루한 구석 없이 진행되었다. 다만 사운드의 구성은 기존에 보여주던 둘의 모습을 벗어나 있었는데, 어둡고 차가운 느낌의 emo-랩 트랙들에 국한되지 않고 훨씬 다양한 사운드로 이 앨범을 채워내, 슬픔에 빠져 있던 둘보다는 음악 자체를 즐기는 이 앨범의 제작기가 담긴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다.

슬픔을 뒤로 미뤄낸 두 아티스트는 색다른 멜로디를 부르는 것에 거침이 없었고, 이는 트랙별로 사운드가 계속해서 변하더라도 위력을 보였다. 기존에 핍이 가장 즐겨 사용하던 사운드에 가까운 “Kiss Me”는 물론, 벨 사운드가 매력적인 “Favorite Drug”에서도, 이 앨범의 선공개 곡 “November”의 칩튠 사운드에서도, 귀가 즐거운 멜로디 라인들을 이어나갔다. 특히 앨범이 끝나가는 무렵 등장하는 “Hocus Pocus”에서 마코넨이 보여준 야성적인 플로우는

이 앨범에서 가장 의외성을 가지고 가장 감정적으로 격앙된 순간이었다.

그 후 피아노의 사운드가 부각된 “Cruise With You”와 “Cruise With You”的 제작기와도 같은, 13분이 조금 안되는 길이를 가진 “Diamond Piano Freestyle”이 이 앨범의 아웃트로를 장식한다. 서로 웃으며 장난치며 곡을 만드는 과정이 담긴 이 트랙은 즐거운 이들의 한때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Diamond”라는 이 앨범의 제목에 더욱 힘을 실어 주기도 했으며, 아련한 감정을 가지고 앨범의 문을 닫게 된다.



이렇게 릴 핍의 디스코그래피가 막을 내렸다.
즉, 더 이상 릴 핍의 새 앨범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팬의 입장으로서는 아쉽지만, 핍은 기뻐할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마지막 앨범을 절친했던 친구 마코넨과 함께했고, 마무리를 자신이 울부짖던 우울한 감정을 떨쳐내고 훨씬 밝고 즐거운 음악으로 담아내는 데에 성공했다. 게다가 자신의 가족들이 이 앨범을 완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함께 기다려 주었고 함께 즐기게 됐으니 말이다.

Nas
Magic 3



Full-Length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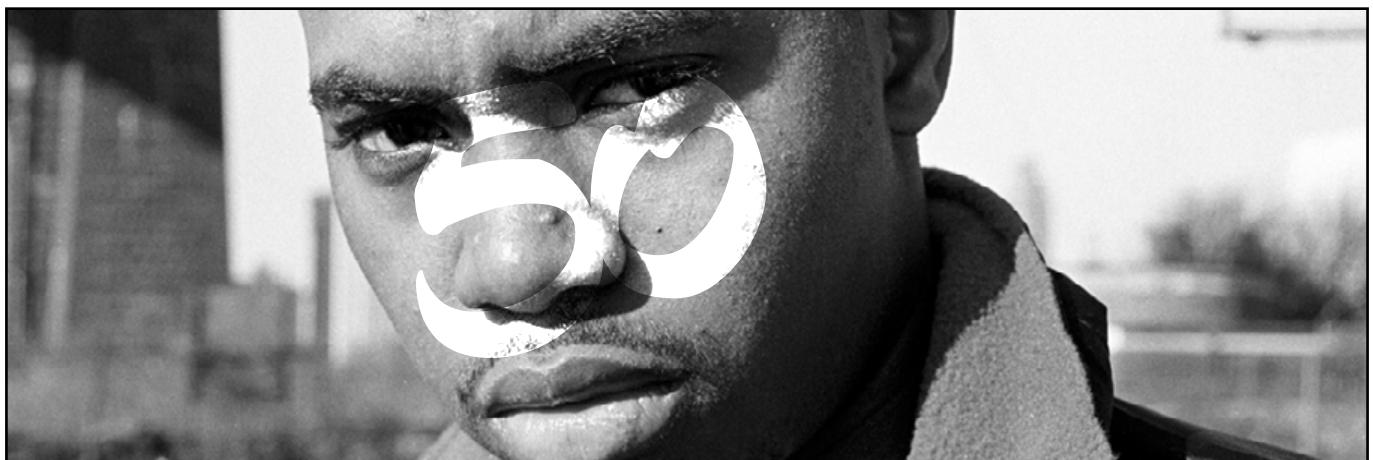


Magic 3

Nas

- | | | |
|--------------------------------|--------------------------------|-----------------------|
| 1. Fever | 7. Pretty Young Girl | 13. Speechless, Pt. 2 |
| 2. TSK | 8. Based On True Events | 14. Japanese Soul Bar |
| 3. Superhero Status | 9. Based On True Events, Pt. 2 | 15. 1-800-Nas&Hit |
| 4. I Love This Feeling | 10. Sitting With My Thoughts | |
| 5. No Tears | 11. Blue Bentley | |
| 6. Never Die (feat. Lil Wayne) | 12. Jodeci Member | |

Editor 온암



2023년 9월 15일은 여려모로 기념비적인 날이 아닐 수 없다. 힙합 50주년에 맞는 나스(Nas)의 50번째 생일이자, 그의 새로운 전성기를 도래케 한 힙보이(Hit-Boy)와의 합작 시리즈가 <Magic 3>로서 종결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협력이 이리도 절묘하게 끝난다는 것이 과연 처음부터 의도된 사항이었는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어떻게든 <Magic 3>의 공개에는 지대한 의의가 부여될 수밖에 없었다. 준수한 결과만을 도출했던 <Magic> 시리즈의 최종 연장선과 힙합 50주년에 맞이하는 나스의 생일에 맞춰 발표하는 합작 피날레 사이의 미묘한 중간값에서, <Magic 3>는 어떠한 결과로 남았는가?

<Magic 3>는 힙합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영예를 기념하기엔 부족한 앨범이다. The Roots의 <Undun>, A Tribe Called Quest의 <We got it from Here... Thank You 4 Your Service>와 JAY-Z의 <4:44> 등 동시대 거장들의 말년기 클래식과 비교했을 때 더욱 극명해진다. 과거의 영예를 현 시점에 대입시키려는 전략 또한 장르적인 색채가 짙다고 보기엔 애매한 수준이다. 그러나 힙합과 같은 해에 태어난 전설적인 래퍼가 만능 프로듀서와 함께 잘하는 것을 꾸준히 반복한 결과, 유종의 미가 찬란히 퇴적되었다.

나스 & 힙보이 세션의 작업 양상을 거시적으로 관찰했을 때, 결국 지난 3년 간의 열띤 활동은 과거의 'Nasty Nas'를 현재에 옮겨심는 작업이었다. 과거의 향수를 재현시키되 현재를 살아가는 리스너들의 기호에 적합하게끔 조정하는. 그리고 <Magic 3>는 그들 스스로 설정한 음악적 대주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 결과, <King's Disease>와 <Magic> 시리즈를 통틀어서도 가장 고고한 힙합 프로덕션이 완성되었다.

고전적 향수를 자극하기 위해선 역시 6~70년대의 소울 샘플만한 것이 없고, 그 중에서도 보이스 샘플이 단연 일품이다. 15개의 앨범 수록곡 중 보이스 샘플을 사용하지 않은 비트를 찾는 것이 그 반대보다 더 힘들 정도로 <Magic 3>의 프로덕션은 보컬에 유난히 집착한다. Billy Paul의 "I Think I'll Stay Home Today"를 샘플링한 "I Love This Feeling"이 가장 대표적이다.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고급스러운 악기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프로듀서들의 시도로 증명된 바, 힙보이는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전략안을 구축했다. 향수는 드럼에서도 찾을 수 있다. 힙보이 본인이 드럼 프로그래밍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프로듀서이기도 하지만, 그는 필요할 때 다른 이의 드럼을 샘플링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미 술한 혐업으로 힙보이는 나스의 랩을 지탱하기에 어떤 종류의 드럼이 필요한지 째뚫고 있었다.

"TSK"는 벨기에의 트립 합 밴드 Hooverphonic의 "Barabas"를 샘플링했고, "No Tears"의 비트에선 나스에게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앰비언트 음악의 영향이 관측된다. 재즈와 드럼리스를 가미한 "Japanese Soul Bar"는 그야말로 낭만적이다. 고농도의 블랙 음반이었던 <Magic>에 비해 음악적 다양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Magic 2>와도 유사하지만, 그 다양성이 앨범의 원활한 흐름에까지 악영향을 끼쳤던 전작의 사례와 달리 위 곡들은 본작에 무리없이 부드럽게 녹아든다.



나스의 앨범은 피쳐링이 적을 수록 더 좋은 법이다. 나스 그 자신이 최고의 래퍼이기 때문이다. 지난 3년 간 작업물의 예시만 들어봐도 무척 단적이다. 물론 앨범의 음악적 평가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주는 법이지만, 피쳐링이 가장 많았던 <King's Disease>의 평가가 가장 낮고 피쳐링 자체가 전무했던 <King's Disease III>의 평가가 대체로 가장 높다. <Magic 3>는 시리즈의 공식을 따라 하나의 피쳐링만을 동원하는데, 그 당사자마저도 Lil Wayne이라는 또 하나의 전설이다. 같은 해에 발표되었던 모든 힙합 음반을 통틀어서도 이견 없이 최상위권에 꼽힐 만하다.

그보다 더 주목해볼 법한 지점은 그의 리릭시즘이다. 씬의 노장, 혹은 힙합 정통론자로서의 신분을 자처하던 그의 행동원리는 그가 3년 동안 적어내려온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과거를 회모하는 랩의 사나이이다. 그의 황금기와 열정은 90년대에 머물러 있기에, 그는 마냥 시류를 따르지만은 못한다. "Based On True Events"의 생생한 스토리텔링은 자꾸만 과거를 뒤돌아보는 그 자신에 대한 반사 반응이다. 이러한 속성은 나스가 객관적으로 최정상의 자리에 오른 적이 있다고 확인하기엔 다소 의아함을 유발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아티스트로서 음악적 본질을 손실하지 않을 수 있던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가끔씩 고개를 뒤로 돌린다 한들 끝내 그의 발자국은 진보를 향한다. 그가 오십 줄에 접어들어 발표했던 모든 앨범들과 동일하게, <Magic 3>의 핵심 또한 그렇다.



2020년 시작된 왕의 여정이 이렇게 마법처럼 막을 내렸다. 'Nas-&-Hit'은 Freddie Gibbs와 Madlib처럼 클래식하지도, Kanye West와 Pusha T처럼 견고하지도, Run The Jewels처럼 혁명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그들은 가능성을 제시했다. 나스라는 원로 래퍼가 여전히 트렌드에 어울릴 수 있다는, 그럼에도 여전히 골든 에라의 향취가 가장 잘 어울린다는, 그가 아직 걸출한 작품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능성은 그와 같은 옛 아티스트들이 아직까지도 활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나스 본인이 직접 밝혔듯이 그는 "동시대의 래퍼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그들만의 예술을 계속하는 것"을 원하고, 기꺼이 선봉장을 자처했다. <Magic 3>가 힙합 5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은 오늘날까지도 이토록이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일한 이가 바로 나스라는 방증이다. 동나잇대의 그 어떤 래퍼가 이런 열의에 작열할 수 있단 말인가? 힙합 50주년을 기념한 콘서트를 개최한 장본인은 Roc Nation의 JAY-Z도, Shady Records의 Eminem도 아니다. Mass Appeal의 나스다.

3년 동안 6개의 앨범. 나스와 힙보이의 길지만 짧았던 여정은 여기에서 끝이다. 나스의 전 커리어를 통틀어서도 유난히 시너지가 훌륭했던 듀오이기에 그들의 작별이 못내 아쉽지만, <King's Disease>부터 <Magic 3>까지의 스타일 유사성에서 확인되듯 안주는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필자는 나스의 다음 파트너로 DJ Premier와 The Alchemist 정도를 내심 점찍어본다. 하지만 그 당사자가 누구던지, 마치 두 번째 삶을 사는 듯한 나스의 열정에 부합할 각오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9월 11일 힙합의 청사진들

클래식 앨범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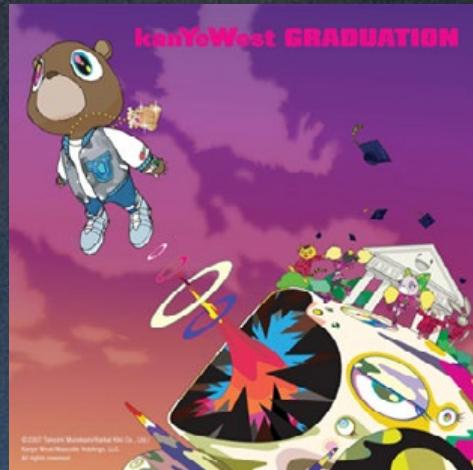


Jay-Z
The Blueprint

Kanye West
Graduation

2001년 9월 11일, 미국 건국 이래 최악의 사고가 발생한 날. 모두가 이 날을 미국의 위세를 상징하던 쌍둥이 빌딩의 몰락과 수많은 사상자들, 그리고 전국적인 충격으로 기억할 것이다.

허나 힙합에게는 조금 다르게 기억될 수 있다.



9월 11일은 힙합에겐 '혁명의 날'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2001년 9월 11일 제이지(JAY-Z)의 <The Blueprint>가 발매되었고,
2007년 9월 11일 칸예 웨스트(Kanye West)의 <Graduation>이 발매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힙합 산업은 상당히 흥미로운 양상을 띠며 진행되고 있었다. 서부에서는 Dr. Dre가, 남부에서는 OutKast가 부상하는 가운데 동부 힙합은 마피오소 랩의 유행을 종결하고 팝 랩을 적극 시도했다. The Neptunes와 Timbaland가 주도하는 클럽튠 사운드도 제할 수 없다. 물론 Eminem이라는 거대한 변수 또한 존재했으며, 인디씬에서 시도되는 재즈 힙합과 네오 소울 또한 존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힙합의 본질적인 사운드에 관한 것이었다. 평크와 재즈의 사운드는 이미 채굴될 만큼 채굴되었고, 팝 랩의 잠재력은 적정 수준을 능가하지 못했다. 그리고 팝 랩의 선두에 서있었던 제이지 또한 그 사실을 여실히 깨닫고 있었다.

1집 이후 음악적으로 대단하다고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음악 외적으로 제이지는 많은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었다. Biggie 사후 4년, 공석이 된 뉴욕의 왕좌에 앉기 위해선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다.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으면서도 힙합의 새로운 기준선이 될 앨범이. 제이지는 소울에서 희망을 보았다. 당시 신인 프로듀서였던 칸예 웨스트와 Just Blaze에게 전체적인 프로덕션을 담당하게 하며 고작 2주 만에 모든 작업을 끝낸 제이지는 그 날로 왕좌에 가장 근접한 사나이가 되었다.

"I Want You Back"을 샘플링한 히트 싱글 "Izzo (H.O.V.A.)", 아련한 사랑 노래 "Song Cry", Nas와 Mobb Deep에 대한 선전포고 "Takeover" 등 싱글 단위로도 <The Blueprint>의 존재감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찬사 받아 마땅한 본작의 아름다운 프로덕션이다. 힙합은 그 작법과 창법에서 멜로디가 심히 결여된 장르였다. 멜로디를 최소화하고 리듬을 극대화하는 것이 힙합의 전략이었으나, 음악에서 선율은 필수적인 것이기에 결국 알앤비 혹은 신스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멜로디를 삽입해야 했다. 그러나 <The Blueprint>는 가장 기본적인 비트 메이킹 단계에서 고전 소울 샘플을 사용함으로써 가장 예술적인 방법으로 힙합에 화성학적 가치를 새로이 부여했다. 소울 음악 특유의 낭만적인 선율과 선명한 보컬 라인을 하이-피치시켜 고음역대의 미학을 창출하는 칩먼크 소울(Chipmunk Soul) 작법. 그것이야말로 앨범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힙합의 옷을 입은 소울의 유산을 다룰 수 있는 이는 최고의 래퍼였던 제이지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경이로운 플로우는 그 어떤 곡에서도 제 힘을 백분 발휘했다.

Jay-Z



Kanye West GRADUATION



'Gather 'round, hustlers, that's if you still livin'? And get on down...'

-JAY-Z, "The Ruler's Back"
-Kanye West, "Good Morning"

JAY-Z
THE BLUEPRINT



정확하게 6년이 지났다. 칸예 웨스트는 6년 전 자신의 지원으로 왕좌에 올랐던 제이지의 첫 라인을 샘플링함으로써 그의 위상을 자신에게 대입했다. <The Blueprint>가 그러했던 것처럼, <Graduation> 또한 새 시대를 열 것이라는 그다운 자신감이었다. 그리고 <Graduation> 이 <Curtis>와 정면으로 승부 후 압도적인 판매량 차이로 승리한 사건이야말로, 칸예 웨스트의 얼터너티브 팝 랩이 50 Cent의 갱스터 랩을 밀어내고 새로운 시대의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The Blueprint> 이후로 시대는 빠르게 바뀌어갔다. Eminem과 Nelly는 음악 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존재가 되었고 Pharrell Williams는 라디오를 지배했으며, Dr. Dre 산하에 50 Cent라는 괴물 신인이 등장했다. 남부에선 Lil Jon의 크렁크를 시작으로 Ludacris, T.I., Lil Wayne이 주도하는 트랩이 급격히 부상했다. 무엇보다 칸예 웨스트 본인이 <The Blueprint>에서 시작된 침명크 소울을 <The College Dropout>에서 이어가고, <Late Registration>으로 성공을 거듭하며 힙합의 새로운 축이 되었다.

힙합에 새롭게 떠오른 키워드는 '일렉트로닉 음악'이었다. 클럽튠의 시대에서 전자 음악에 대한 속련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를 흥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성공의 판가름이 되었다. 808과 신시사이저, 오토툤으로 무장한 남부 힙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유행을 좇는 일 없이 혁신을 주도하며 대중성과 음악성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던 칸예 웨스트가 그의 음악성을 포기하고 유행을 추구해야만 했을까? 답은 간단했다. 그의 음악에 트렌드를 덧씌우면 되는 일이었다.

칸예 웨스트는 그의 장기인 보컬 샘플링을 다시 사용해 앨범이 진부한 클럽튠 힙합 앨범 정도로 전락하지 않게 했다. Daft Punk, Michael Jackson 등 과거의 팝 뱅어들을 샘플링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함과 동시에, 마이크 딘의 신시사이저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며 전자 음악의 색채를 화려히 덧입힌 것이다. 앨범 최고의 히트 싱글인 "Stronger"와 "Good Life"가 탄생한 방식이다. 아레나 략의 영향을 받은 "Champion"과 "I Wonder"는 간결함과 반복의 미학을 상징한다. 또한 오케스트라와 신시사이저의 웅장한 화음이 돋보이는 "Flashing Lights"가 존재하는 반면, 올드 칸예를 연상케 하는 "Everything I Am"이나 "The Glory"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광활한 음악적 시도야말로 2007년에 발표되었음에도 현 시점에서 <Graduation>의 사운드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유이다.

이 모든 격변기에 칸예 웨스트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는 사실은 새삼 그의 혁신성을 돌아보게 한다. 기존의 가치를 고수하면서도 새로운 이점을 언제든 수용할 수 있는 적응력이야말로 샘플링에 근간을 둔 힙합 음악이 가진 최고의 이점이다. 칸예 웨스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깨닫고 있던 아티스트였고, 제이지는 그런 칸예를 지원할 만족이 있는 아티스트였다. 그들이 적지 않은 시간에 일군 힙합 사운드의 혁명이야말로, 힙합 최고의 아티스트를 논할 때 유독 둘의 이름이 잦게 언급되는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다시 힙합에 새로운 대체 사운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 그 어떤 때보다 9월 11일의 혁신이 절실하다.



KANYE WEST

A surreal photograph of Travis Scott in a field. He is wearing a brown suit jacket over a white t-shirt and black leather boots. He is standing in a field of tall, dry, golden-brown grass under a blue sky with wispy clouds. His right hand is raised, showing his fingers spread wide. His left arm is bent, with his hand near his chest. The overall mood is mysterious and artistic.

Birds in the Trap Sing McKnight

Travis Scott

이 시대에 진정한 랙스타는 누구일까? 그 답은 바로 트래비스 스캇이다.

이 시대에 진정한 랙스타는 누구일까? 그 답은 바로 래퍼 트래비스 스캇(Travis Scott)이다. Nirvana를 거쳐오면서 랙스타는 단순 랍을 하는 스타가 아니라 이중적 의미로 지칭되었다. 전방위적으로 대중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일종의 문화적 혁명가로 말이다. 단순 음악시장에 가져오는 컬쳐쇼크뿐만 아니라 패션, 음악, 문화까지 대중들의 일상까지 녹아들 정도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음악적 영향은 수많은 카피캣 양성을 시작으로 힙합계를 넘어 팝까지 그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진가는 바로 패션이다. 신발장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패션에 관심에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패션업계는 물론 패션을 좋아하는 일반인도 그의 착장을 꾸준히 찾아보고 카피할 만큼 Kanye West와 Pharrell Williams의 뒤를 잇는 패션 스타라 불릴 자격이 넘쳐난다. 마지막으로 그의 공연 퍼포먼스의 열기까지 이 시대의 랙스타라고 불리기 적절한 존재가 스캇이다.

이 앨범은 스캇을 유명한 래퍼에서 랙스타로 거듭하게 했으며 스캇의 디스코그래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유명한 래퍼긴 하지만 랙스타 같은 거물급 수준은 아닌 스캇을 메이저 위치는 물론 2010년대 스타 중 하나로 만들어준 앨범인 동시에 '스캇의 향이 많이 첨가된 가장 스캇다운 앨범'이다.

이 앨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계산적으로 들어간 추임새가 가장 큰 특징이다. 저음의 로우 텐션으로 진행하다가 하이텐션으로 올라가는 것이 눈에 띄는 곡구성인데 갑자기 텐션을 올린다면 곡의 이질감은 물론 완성도 부분에서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스캇은 이러한 점을 완벽히 보완했는데 중간중간 추임새를 넣어 사운드가 비는 것을 방지했으며, 문장과 문장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한순간에 로우 텐션을 끊어내고 턴업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한다. 결국 주로 힙합을 소비하는 곳인 파티와 클럽에서 애용되며 히트를 칠 수 있게 된 요소가 됐다.



또 트랩 사운드치곤 생각 외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필수적인 장치들만 가지고 나머지는 스캣의 보컬로 대체한다. 오토투션에서 비롯된 멜로디컬한 랩은 앨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싸는데 랩 위에 어지럽게 여러 장치들을 쏟아붓지 않았고, 담백한 추임새로 여러 장치를 대체하면서 멋진 느낌을 지워주고 중독적인 멜로디컬한 랩은 살려주어 그만의 장르를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무조건 도움만 되는 건 아니다. 전작들에 비해서 랩의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어 랩적인 면모는 다소 퇴색되었다. 또 흑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 흑 하나만으로 노래를 질질 끌고 가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 랩의 비중이 너무 간과되어 멋진 트랙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sdp interlude"와 "lose" 등 애매한 것들도 있다.

앨범 속 곡들의 구성요소가 비슷비슷하고 랩의 비중이 적어 자칫하면 지겨움을 느낄 수 있었지만, 중간중간 Kendrick Lamar, 21 Savage, André 3000, Kid Cudi, Nav 등 수준급의 피처링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어 각자 약간의 개성을 챙겨줬다.

앨범 커버처럼 이 앨범을 통해 그의 삶은 변태과정을 거쳤으며 그의 사운드는 완전히 진화되었다. 앨범 속 자신의 고향인 휴스턴의 영웅이 됐으며 애틀랜타라는 거대한 벽을 넘고 휴스턴이라는 도시를 여러 리스너들에게 각인시켰다. 어쩌면 스캇 본인도 <Birds In The Trap sing McKnight>이라는 변태과정을 통해 략스타로 거듭나게 될 것을 예상한 거 일 수도 있다.



free topic

Editors

45

SongChico

온암

틱톡,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밀레니엄 세대

Editor 45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힙합 시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00년대에는 CD 믹스테이프를 이용해 주로 클럽에서 언더그라운드가 소비됐다면, 2010년대에는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대표적으로 사운드클라우드)를 통해 언더그라운드들이 활발하게 소비되었다. 그리고 2020년대는 솟폼 콘텐츠로 대표적으로 틱톡이나 인스타 릴스로 인해 언더들이 활발하게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틱톡은 20 중반 이상의 세대들에겐 익숙하지 않은 점과 중국의 플랫폼이라는 점으로 반감이 심하다. 하지만 2000년생 이후의 사람들이라면 학창 시절 틱톡을 접하며 자란 이들이 많을 정도로 생각보다 오래됐고, 하나의 대중문화로써 우리의 일상에 뿌리 깊게 내렸다.

빌보드에서도 자체적으로 "틱톡 Top 50 차트"를 만들 정도로 10대와 20대 등 틱톡은 젊은 소비층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 여러 부정적인 인식들을 뒤로하고 최근 트렌드인 플랫폼 틱톡을 더 파고들자면, 그 어느 때보다 언더씬이 건강해졌음을 느낄 수 있다.

밑으로 스크롤하면 무작위로 영상이 나옴으로써 굳이 찾아보려 하지 않아도 한 번씩은 노출되게 되어있는데 이 점이 언더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전에는 언더들을 주로 관심이 많은 소수의 리스너들이 찾아내서 소비를 했다면 최근엔 일반인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 해비 리스너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창작물이 보이는 사람이 무작위로 선정되면서 기존 리스너들만 즐기던 여려 세부 장르들도 대중들이 소비하기 시작했다. 솟폼 콘텐츠 특징상 짧은 시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하는데 이런 특징 때문일까 강렬한 멜로디와 반복적인 곡구성을 뛰는 곡들이 유행이다. 결국 자연스럽게 가사를 앞세운 무거운 음악들보단, 진입장벽이 낮은 멜로디 중심의 이지리스닝 곡들이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점점 악해지고 있던 앨범의 힘은 더 실추될 것으로 보이며 싱글의 입지가 더 탄탄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틱톡의 특성상 콘텐츠의 재창작도 핵심요소로 빠질 수 없다. 유명곡들을 리믹스 한 곡이나 아예 다른 장르와 융합이 활발하며 새로운 장르 탄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힙합만 보자면 최근 레이지, 뉴재즈, 플럭앤비, 저지클럽, 풍크 등과 활발하게 발전, 변화되고 있으며, 이 점 또한 다크한 사운드의 트랩이 가고 새로운 사운드의 힙합이 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같다. 전보다는 다른 장르와의 교류를 활발히 하여 여러 면으로 발전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순수 힙합적인 면이 더 약화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같다.

위에서 말했듯이 10년을 주기로 소비되는 매체도 변하는데 이에 응하듯이 전반적인 음악 스타일도 세대에 따라 변한다. 아직 20년대를 대표할 만한 거울 신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2000년대생 프로듀서 위주로 힙합씬에 새로운 물결이 불고 있다. 대표적으로 Frozy, Lil Tecca, Amir. pr0d, Kyra, Cochise인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하면 여러 장르를 잘 혼합하고 힙합과 팝 사이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곡구성 또한 위 틱톡 특징과 같이 강렬하고 중독적인 멜로디 위주로 반복적인 루프를 그리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이다.

전 세대들과 가장 특이한 점을 뽑자면 바로 색채감이다. 바로 전 세대인 트랩 세대만 보더라도 무채색으로 음에 위주의 리딩보단 808 베이스와 스네어 위주의 타격감으로 곡을 전개한 반면, 최근 힙합을 들어보면 아직 여전히 위의 것들의 향이 세긴 하지만 808베이스와 스네어의 비중은 줄어들고 색채감이 짙은 멜로디컬한 비트를 만들어낸다.

결론을 짓자면 그 어느 때보다 하위 장르들이 일부 마니아를 넘어 대중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음악시장 전체를 봐도 그 어느 때보다 언더씬이 이렇게 건강한 적은 없었다. 힙합적으로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생으로 넘어와 다채로워졌으며 힙합과 팝의 경계선이 한층 더 모호해졌다. 아직은 신호탄에 불과하지만 10주기로 힙합의 사운드가 큰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지금 이 상황을 바탕으로 더 큰 스노우볼을 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가면 갈수록 랩의 비중은 축소되고 흑의 비중은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힙합적인 면모는 줄어든다. 또 그 어느 때보다 여러 장르와 융화되어 팝과 가까운 사운드를 성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미리 보아 어쩌면 '힙합이란 장르가 대중과 더 친숙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뒤로 글을 마친다.



EMO씬 돌아보기

Editor SongChico

지난 9월 8일, 릴 펫(Lil Peep)과 아이러브마코넨(ILOVEMAKONENN)의 듀오 앨범이 발매되며 릴 펫의 디스코그래피가 막을 내렸다. 같은 날, 텐타시온(XXXTENTACION)의 첫 번째 믹스테이프 <ItWasntEnough>가 정식으로 발매되기도 했다.

세상을 떠난 두 아티스트가 생전에 만들어 둔 앨범이 공교롭게 같은 날 발매되는 모습이 EMO씬이 활발하던 한때를 그리게 만들었다.

이제는 정말 한 챕터의 막이 내린 EMO씬을 씬에서 익히 알려진 사건들의 뒷이야기와 씬의 중심을 지키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돌아보려 한다.

EMO-랩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다.

누구는 Kanye West가 4집 <808s & Heartbreak>에서 보여준 감정선이, 혹자는 Bones가 2010년대 초반 선보이던 클라우드 랩에서 발전한 형태의 음악이 EMO-랩의 시초라고 주장하지만, 이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시기는 분명하게 한 시점을 지목할 수 있다. 바로 2017년 릴 우지 버트(Lil Uzi Vert)의 “Xo Tour Llif3”가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7위를 차지하며 어딜 가든지 이 곡을 들을 수 있었던 시기이다.

우지를 EMO-래퍼라 규정짓기엔 거리가 좀 있지만 이 곡은 대중적으로 히트한 첫 EMO-랩 트랙이라고 할 수 있다.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7위까지 올라갔던 이 트랙이 가진 ‘날 끝까지 미뤄내’, ‘내 친구들은 다 죽었어’라는 내용의 가사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이에 이 곡의 장르를 아예 이모코어와 같은 락 음악으로 분류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였다.

국내에도 이모-랩/이모-힙합이라는 이름으로 전파된 이 장르는 2010년대 중반, 국내/외 할 것 없이 우울한 분위기의 사운드와 가사, 그리고 멜로디컬한 랩을 많은 래퍼들로 하여금 시도하게 해 힙합이 더욱 풍부한 감정을 가지는 것에 크게 기여했다.



لليز في نجاحاته

EMO-씬을 대표하던 이름, Lil Peep의 죽음이 더 슬프게 느껴지는 이유.

음악을 하기 위해 뉴욕을 떠나 약 4,500Km 떨어진 L.A에 정착한 소년은 이 곳에서 만난 동료들과 크루 Schemaposse를 결성하고 믹스테이프 < Lil Peep: Part One >을 통해 사운드 클라우드 씬에서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다. GothBoiClique (GBC)의 멤버들을 만난 후 커리어는 더욱 상승세를 타게 되는데, 이 시기 발매한 < Cry Baby >, < HELLBOY >를 통해 레이블과의 계약을 따내기도 했으며, Lil Tracy (Yung Bruh)와는 합작앨범도 발매해, 사운드 클라우드씬에서 가장 위력적인 듀오로 거듭나 Emo씬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가 되었다. 이후 첫 정규앨범 < Come Over When You're Sober pt.1 >을 발매하고 월드투어를 도는 래퍼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투어를 둘던 중 마약중독으로 세상을 떠나 별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익히 알고 있는 약 4년의 짧은 릴 펍의 커리어이다.

하지만 이 죽음 이후 릴 펍의 어머니는 릴 펍의 레이블에게 부당 사망 소송을 걸고 결국은 합의에 이르게 된다. 이 송사 중 유가족 측의 변호사들이 꺼낸 입장들은 그의 팬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는데, 투어 내내 탑승했던 투어버스에는 위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생명구조장치’가 없었으며, 레이블 ‘First Access’는 투어 중 지쳐 있는 릴 펍에게 약물을 권했고, 이로 인해 릴 펍이 더욱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했다. 재판의 판사는 이를 일부 인정하며 레이블의 관리 소홀과 약물을 제공함으로 위험한 환경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즉, 레이블이 아티스트에게 약물 사용을 권장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이 인정된 것이다. 릴 펍의 죽음은 단순히 씬의 스타를 잃었다는 것을 넘어, 현재 음악산업에서 기업들이 약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아티스트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생각해볼 만한 주제이기도 하다.



EMO-씬의 두 아이콘이 만난다.

EMO씬의 아이콘, 릴 펍이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여전히 EMO씬의 한 축을 담당하리라 믿어지던 텐타시온은 늦게나마 펍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마코넨이 가지고 있던 릴 펍과의 합작 곡 “Sunlight On Your Skin”을 텐타시온이 접하게 되고, 이 곡이 마음에 들었던 텐타시온이 마코넨 측에 양해를 구하며 협업이 진행되었다. 이 곡을 흔쾌히 양보해 준 마코넨은 ‘펍이 생전에 텐타시온을 만났더라면 둘은 좋은 친구가 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이 의견에 반발한 이들도 존재했는데, GBC의 멤버들은 ‘릴 펍은 생전에 텐타시온이 행했던 범죄행위들과 과격한 언행으로 인해 텐타시온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이 협업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며, 이 곡에 대한 보이콧 선언을 했다.

하지만 텐타시온과 릴 펍, 둘 모두와 친분이 깊었던 Fat Nick이 ‘정작 펍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은 GBC의 멤버들이다, 둘은 서로 만난 적이 없지만 적어도 본인과의 대화에서는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릴 펍은 생전에 텐타시온과 만날 계획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밝히며 결국 GBC의 멤버들은 사과와 함께 보이콧을 철회하게 되고, 이 곡이 발매하기로 한 것은 아들의 상실이라는 공통적인 고통을 겪은 두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마코넨이 밝히기도 했다.

텐타시온도 이 곡을 작업한 후 발매가 되는 것을 보기 전에 세상을 떠나며 둘의 합작은 더 이상 만나볼 수 없게 되었지만 EMO씬의 팬이라면 한번쯤은 상상해 본 두 아이콘의 협업이 이뤄진 순간이었다.



두 전설을 기리던 소년.

두 아이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EMO씬은 동력을 잃어가는 듯했다.

그때 등장한 새로운 스타가 Juice WRLD(주스 월드)이다. 2017년 12월에 발매한 싱글 “All The Girls Are Same”의 비디오를 Lyrical Lemonade가 제작하고 유명세를 얻은 주스 월드는 이듬해 Sting의 “Shape of My Heart”를 샘플링한 “Lucid Dreams”, 릴 팝과 텐타시온의 추모곡 “Legends”, 이 두 곡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Emo 씬넘어 힙합 장르 전체가 주목하는 래퍼가 되었다.

2018년, 트랩씬의 대선배 Future와 Young Thug의 지지를 받아 승승장구하던 주스 월드는 특히나 차트에서 큰 위력을 보이기도 하며 쉼없이 달렸고, 2019년엔 잠시 활동을 쉬어 갔다. 공백기 동안 조금은 인기가 사그라든 듯 보였지만 10월, YoungBoy Never Broke Again과 함께 발매한 싱글 “Bandit”의 성적은 아직 그가 존재하고 이젠 돌아올 때가 되었음을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이는 주스 월드의 생전 마지막 작업물이 되고 말았다. 같은 해 12월, 주스 월드는 전용기 안에서 약물중독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약물중독으로 릴 팝이 세상을 떠난지 2년이 조금 넘었을 때, 그의 죽음을 기리던 주스 월드 또한 릴 팝과 비슷한 사인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주스 월드는 평소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적 불안을 겪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더욱 약물에 의존하여 버티곤 했다고 한다. 주스월드의 심리상태는 곡의 주제와 노랫말이 되어 그의 유산을 남기게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의 생명을 앗아 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씁쓸한 뒷맛이 더욱 짙게 남곤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EMO-씬은?

세 스타들을 갑작스레 떠나보낸 EMO씬은 큰 힘을 잃고 말았다.

rateyourmusic.com의 발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총 960개의 작품이 이 장르에서 발매되었지만 2021년 들어선 480개의 작품이 발매되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장르를 대표할 스타가 없다는 점도 있지만, 이 시기 팬데믹이 길어지며 사람들이 더 이상 ‘슬픈’ 음악을 듣고 싶지 않아 했다는 점도, 그 시기 힙합의 다른 하위 장르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는 점도 이 현상의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장르를 지키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도 존재하는데 앞서 언급한 아티스트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Bladee, Eco2k가 속한 Drain Gang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탄탄한 팬층을 구성하는데 성공했고, 릴 팝의 파트너였던 Lil Tracy는 계속해서 emo 랩 앨범들에 참여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작년에 발매했던 <Saturn Child>에서는 더욱 트랩과 레이지에 가까운 사운드를 시도했는데, 반대로 올해는 2장의 합작앨범을 모두 EMO 랩으로 채워 본래 자신의 음악으로 돌아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팝 랩과 EMO 랩을 적절히 풀어낸 Dro Kenji, 릴 팝과 비슷한 색을 띠곤 하는 Drippin So Pretty, emo 랩과 위치하우스, 앰비언트와 같은 다양한 장르들과 섞는 데에 능한 Wicca Phase Springs Eternal 등 다양한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여전히 이 씬을 지키고 있어 전 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EMO 랩 장르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감성이 존재하는 한 이 씬에 대해 ‘죽어버린 씬’이라는 칭호를 붙인다면 그것은 오판이고 실수일 것이다.

샘플 이모저모, 똑같은 샘플을 사용한 힙합 넘버!

Editor 온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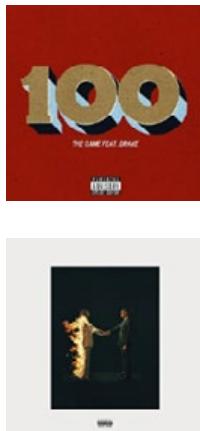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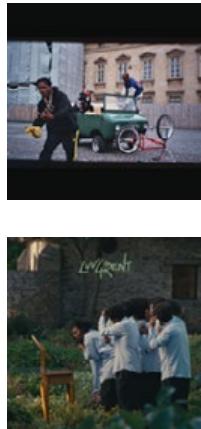


2. Monica - Knock Knock

사실 애초에 원곡부터가 The Masqueraders의 "It's a Terrible Thing to Waste Your Love"를 샘플링한 곡이다. 게다가 그 프로듀서가 Missy Elliott과 Kanye West라니, 단순한 알앤비 싱글로만 소모되기에 이 곡은 샘플로서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하다. 물론 타 아티스트들의 생각도 같았을 것이다. Tyler, The Creator는 그의 친우 A\$AP Rocky와 라임을 수놓을 비트의 샘플로 이 곡을 선정했고, Kal Banx는 "Potato Salad"의 성공공식을 그대로 따라 "No L's"를 Smino에게 선물했다.

1. Stan Getz & Luiz Bonfá - Saudade Vem Correndo

위대한 프로듀서가 한 번 양질의 샘플을 발굴하면, 그 샘플은 후대에 계속해서 재사용되는 법이다. J Dilla가 프로듀싱한 The Pharcyde의 "Runnin'"은 재즈 장르의 얼터너티브 힙합을 상징하는 싱글로서 영구히 기록된다. 그리고 몇십 년간 수많은 프로듀서들이 이 샘플을 재해석하곤 했으나, JPEGMAFIA만큼이나 독창적인 해석을 가한 아티스트는 없을 것이다. J Dilla가 샘플의 무결성과 리듬을 백분 살려냈다면, JPEGMAFIA는 원곡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폭발성'이란 성질을 "DIKEMBE!"에 새롭게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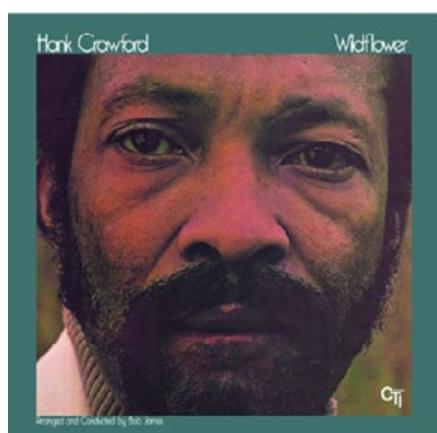


4. Hank Crawford - Wildflower

힙합 역사상 가장 잊지 샘플링된 곡을 선정할 때, Hank Crawford의 "Wildflower"가 제외되선 안 될 것이다. 그 고고함만큼이나 샘플로서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시대를 불문하고 가공되었던 샘플의 재해석 가운데, 필자의 뇌리에 꽂힐 만큼 존재감이 지대했던 곡은 오직 둘뿐이다. 2Pac은 "Shorty Wanna Be a Thug"에서 갱스터에 대한 동경에 반어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고, Kanye West는 우아하디 그지 없는 게토 드라이브 송 "Drive Slow"를 주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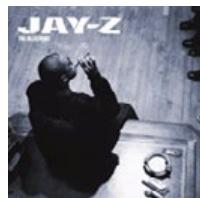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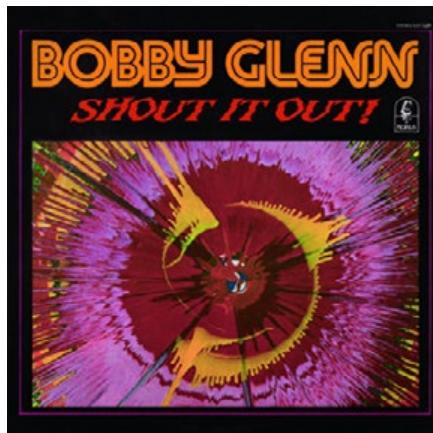
3. Peabo Bryson - Feel the Fire

Peabo Bryson의 "Feel the Fire"를 샘플링할 때는 꼭 침명크 소울 작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불문율은 어째서 생긴 것일까? 그만큼이나 "100"이 인상적이었다는 방증이긴 하겠으나, 샘플링한 비트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The Game과 Drake의 시너지 효과를 어찌 감히 능가하겠는가? 다행히도 최근, Metro Boomin은 이 지루한 공식에서 조금 빛거거나 다른 부분을 커팅함으로써 고인이 된 Takeoff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 이름도 실없이 엽기적인 "Feel the Firaayaah"로 말이다.



샘플 이모저모, 똑같은 샘플을 사용한 힙합 넘버!

Editor 온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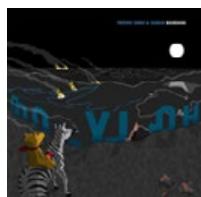


6. R.D. Burman - Dance Music

같은 샘플을 공유하는 힙합 트랙들을 발견했을 때 가장 설레는 순간이라면, 역시 그 프로듀서의 이름이 역사상 최고의 거장일 때일 것이다. Kanye West는 평소처럼 미니멀리즘의 미를 추구했으나, 안타깝게도 Nas의 육중한 그루브는 "Bonjour"의 비트로도 지탱기 힘든 것이었다. 반면 Madlib의 "Education"은 유사하게 단출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로파이 딱싱만으로 일종의 영력을 발산하며, Freddie Gibbs는 Yasiin Bey와 Black Thought라는 걸출한 MC들을 양 어깨에 두고 2019년 최고의 랩 싱글을 배출했다.

5. Bobby Glenn - Sounds Like a Love Song

때론 Just Blaze의 속마음이 궁금해진다. 'Drake'라는 미명 하에, 그의 샘플 루핑을 그대로 모방한 곡이 그가 JAY-Z를 위해 창조한 매그넘 오퍼스에 버금가는 스트리밍 지수를 축적하고 있는 형편에 대해 말이다. 물론 "When to Say When"이 결코 좋지 않은 곡이라 말할 순 없지만, "Song Cry"를 완성하기 위해 원곡의 건반을 하나씩 커팅해가며 재조립한 Just Blaze의 노력, 그리고 그를 아득히 능가하는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와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역시 클래식 편에 더 큰 크레딧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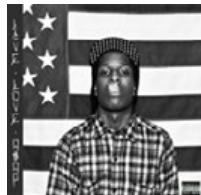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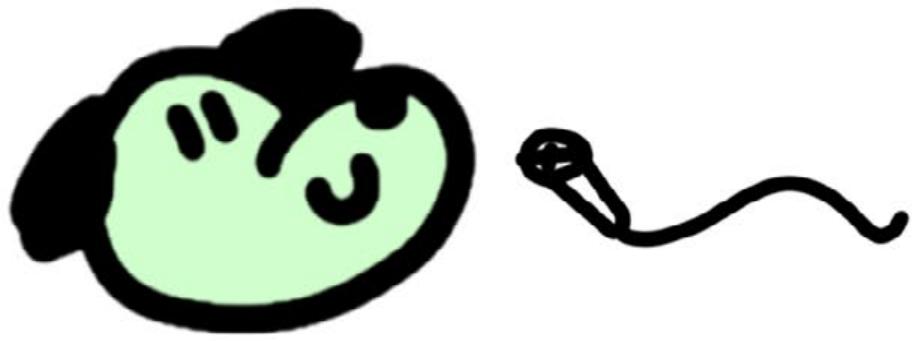
8. Mimi Goese - Fire and Roses

한 샘플을 두 가지 방법으로 가공하는 행위는 매우 유능한 프로듀서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물론 Clams Casino 같은 이에겐 더없이 쉬운 작업일 것이다. A\$AP Rocky를 위해선 샘플을 커팅하고 루핑해 리버브(Reverb) 효과를 걸어준다. 양질의 클라우드 랩 싱글 "Wassup"의 완성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곡의 다른 부분을 커팅해 리버스(Reverse)하고 드럼을 첨가한다. 서산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All I Need"의 완성이다. 이 비트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래퍼 중 Soulja Boy를 만났다는 것이다.

7. The Chambers Brothers - So Tired

가끔 "옛날이 좋았지"라며 회상에 잠기곤 하는 골수 힙합 팬들을 본 후 직접 옛 힙합과 현 힙합을 비교해본다면, 웬지 그들을 이해하게 된다. The Chambers Brothers의 "So Tired"를 재해석하는 방식의 예에서도 같다. OutKast는 Organized Noize와 함께 샘플에 리버브를 포함한 특수 효과를 걸어 원곡에선 전혀 연상할 수 없는 미래적인 사운드를 창출했다. 헌데 "Super"의 경우, Cordae가 랩을 가미할 트랩 비트의 공허한 배경을 채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샘플을 배치했을 뿐이다. 아, 아무튼 옛날이 좋단 말이다,,, .!!~





줌터뷰

with
Snoppi



Intro : 자기소개

공ZA (이하 공) : 안녕하세요, 음악 관련 인터뷰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공ZA라고 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스노비 (이하 스) : 안녕하세요, 스노비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과 함께 음악 업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호두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스노비입니다.

공 : 힙합엘리 사이트 레전드이신 스노비님을 좀더뷰에 모시게 된 점 영광이네요. 스노비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셨나요?

스 : 스노비는 스노비즘이라는 단어에서 따왔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무언가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영원히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모든 걸 알 수 있는 사람도 영원히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당당하게 내세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았어요.

Snobbish라는 말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했을 때는 죽문가 같아요. (웃음) 죽문가가 이름이면 아무리 죽문가처럼 굴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공 : 마치 영화 <8 마일>에서 에미넴(Eminem)이 파파독을 상대로 디스전을 벌일 때 본인 디스를 다 해버리니까 할 말 없는 것처럼 활동명으로 방어 장치를 세우셨네요.

스노비님은 블로그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근황과 관련된 블로그 게시글은 23년 6월 전역 이후로 업로드를 안 해주셨더라구요. 전역 이후 9월까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스 :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에 개인적인 글을 올린 지가 꽤 됐는데, 원래 상황이 혐약하고 공상 맞을 수록 그런 센치한 글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힘들었다 보니까 그런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약간 울분이 섞였던 거죠.

하지만 제가 전역을 하고 다시 사회인이 되면서, 이쪽 바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나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하는 활동들이 많아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근황 섞인 블로그 글처럼 저를 돌아볼 만한 시간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공 : 센치해질 시간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근황 글은 올리지 않으셨고, 음악 시장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소개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활동명인 스노비와 함께 호두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총 두 개 운영 중이시잖아요? 이 두 가지 콘텐츠를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시던가요?

스 : 저야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로 봐주시는 게 이미지 상으로도 좋기 때문에 굳이 티를 내지 않지만, 스노비 채널 같은 경우는 날 잡고 하루 정도면 일주일 치 분량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호두아카이브 영상도 지금 형태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생각해서 6~7시간 정도면 한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물론 공을 더 들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저는 꿀 빠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서, 최소한의 노력만 했을 때 나오는 것들만 가져가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보상만큼만 누리고 싶구요.

그렇게 제 기준에서 상한선이 높은 최저점을 설정해놨을 때 평생 건강하게, 50년이 지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엄청 잘하려고 한 적은 없고, 가장 대충했을 때 괜찮은 콘텐츠가 나오는 게 베스트라는 생각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 : 너무 공을 들으면 삶의 밸런스가 깨지기 마련이고, 대충 하더라도 잘하는 느낌을 살리고 싶은 정도로 보면 될까요?

스 : 그렇죠. 사람 자체가 디테일하고 잘난 사람이면 아무리 대충해도 괜찮게 하잖아요. 음악가들도, 정말 천재인 사람들은 대충 끄적여도 남들보다 훨씬 좋은 음악이 나오듯이요.

저도 그냥 그런 사람이고 싶은 거 같아요.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태도 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 : 혹시 추후에 혼자서 진행하는 게 벅차다 싶었을 때는 팀을 꾸려서 활동하실 계획은 없으실까요?

스 : 마인드가 워낙 철저하기도 하고, 저 자신에게 엄격한 편이라 최종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못미더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저만의 기준을 설정해놓는데,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저 혼자만 신경 쓸 것 같은 자잘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디테일은 사람들이 하나도 신경 안 쓰는데 이거 해서 뭐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저에게는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혼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만 벌이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혼자 대충하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 :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너지도 물론 있겠지만, 스노비님 입장에서는 디테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본인의 기준을 따져봤을 때 혼자 하는 게 남들과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시네요.

스 : 죄송해요. 정말 없어요. 이따가 준비된 답변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저는 항상 오늘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피드에도, 올라오는 게 항상 오늘 소식이나 이번 주에 나올, 혹은 지난 주 금요일에 나온 신곡들 위주인 것도 이 때문이에요. 예전 거를 굳이 뒤져가지고 만드는 건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항상 새로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에 집중해서 가장 오늘이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제 기본 자세예요.

아마 목요일 즈음에 시간이 나서 호두아카이브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목요일에 제작을 해야겠죠. 그러면 지금의 저는 어떤 영상을 만들지 아직 알 수 없어요.

대신,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루 안에 모든 게 끝나야지 말이 되는 거니까 하루 안에 만들 수 있는 품으로 가져가는 거구요.

공 : 보통 작업 방식은 그 주의 뜨거운 소식이나 오늘 당장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위주로 작업을 하신다고 말씀해주셨고, 만약 목요일에 영상을 만든다면 그에 관련된 부분은 목요일의 스노비가 아는 거군요.

이렇게 스노비님께서 만드신 호두 아카이브나 스노비 채널 관련해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스 : 정말 큰 목표로 말을 해보자면, 저는 결혼을 하고 싶고 자식을 낳고 싶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들이나 딸이 생기겠죠?

아들 세대는 힘들 수 있어도 손자 세대가 되었을 때, 그냥 드립을 쳐도 혹은 재밌는 이슈를 가져와도 힙합과 관련되어 있는 게 자연스러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차피 죽어요. 그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 몸뚱이가 남아 있을 때 얻는 것들에 대한 욕심은 크게 없어요. 그건 남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무언가를 문화적인 유산으로 남기는 게 제가 영원히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진심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티가 날 거예요.



[UTOPIA]... 왜 5.7점 줬을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호두 아카이브의 최근 영상은 피치포크에서 트래비스 스캇(Travis Scott)의 <UTOPIA>를 혹평한 것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후에 올라올 영상에 대해서 살짝 스포를 해주신다면?





첫번째 질문

첫번째 질문 :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



Fun. - "We Are Young"

공 : 본인의 육신은 100년이면 사그라들지만 스노비님께서 남기신 유산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듯이 기억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노비님 식의 <그 날이 오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스노비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셨고, 본격적인 퀴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는 어떤 곡이었을까요?

스 : 오늘 본업을 마치고 집에 오면서 들은 편(Fun.)의 "We Are Young"입니다. 오늘 이 곡이 스포티파이에서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해서 10억 클럽에 가입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재생했어요. 제가 지금 스물다섯인데, 딱 10년 전인 2013년에 이 그룹이 빌보드 차트를 부쉈다면? 그 때가 한창 제가 음악을 접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기념비적인 곡이기도 해요. 이런 걸 듣고 음악이라는 게 정말 나를 미치게 한다는 걸 깨닫고, 그 10년이 지나 지금의 제가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컸는데, 오늘 들었을 때의 의미도 있다보니까 이 곡을 선택 안 할 수가 없었죠.

공 : 마침 이 곡이 10년 전 즈음에 나왔고, 스포티파이 10억 클럽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조회 수도 10억 회네요. 평소에도 이런 밴드 음악을 자주 즐겨 들으시나요?

스 : 지금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 때 당시의 메인스트림이었던 이미진 드래곤스(Imagine Dragons), 뮤즈(Muse), 그린 데이(Green Day) 같은... 특유의 깁치는 학생들의 음악 풀이 있는데, 한창 듣다가 힙합 장르로 넘어간 뒤에는 힙합 위주로 청취하고 있죠.

공 : 이전에는 메인스트림을 주름 잡던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으시다가 힙합 장르의 매력을 안 뒤로부터는 힙합이 청취의 지분을 크게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최근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한 편의 "We Are Young"을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로 소개해주셨고, 스트리밍 플랫폼은 스포티파이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스 :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플 뮤직만 사용하고 있고, 스포티파이는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파놓았어요.

그리고 스노비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를 할 때는 UI가 애플뮤직보다 스포티파이가 좀 더 적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용도로 스포티파이를 사용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애플 뮤직은 스트리밍 횟수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서, 보통 소식을 전할 때는 스포티파이를 기준으로 전하게 되죠.

공 : 아무래도 눈으로 딱 확인할 수 있는 게 편하긴 하죠. 그럼 스포티파이에서 10억 스트리밍이 넘었다와 같은 소식은 어느 매체를 통해 접하시는 걸까요?

스 : 저는 보통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통해서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웬만한 메인스트림 페이지를 보면 그런 소식을 다 비슷하게 전달해요.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보는 거고, 저는 진심이니까 항상 그런 정보들을 긁어 모으는 거죠. 그게 맞물리면 서로 좋은 게 아닐까요?

저는 관심 받아서 좋고, 사람들은 귀찮은 걸 저를 통해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요. 간단한 시장 논리죠.

스노비님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



스노비님 애플뮤직 플레이리스트



이미지 클릭 시 이동합니다.



두번째 질문

두번째 질문 :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노래



Spellling - "Always"

공 : 음악에 관련된 정보는 항상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고 계시는 것과 함께 스트리밍 플랫폼은 애플뮤직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노래로는 어떤 곡을 골라주셨을까요?

스 : 익스페리멘탈 팝 뮤지션 스펠링(Spellling)의 신보에 수록된 "Always"를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고, 버전이 두 개인데 초록색 앨범 커버 버전으로 들었어요.

가사, 보컬의 감정선, 악기 활용 같은 게 제 취향을 완전히 저격했어요. 제가 뮤지컬스럽게, 혹은 영화처럼 느껴지는 극적인 걸 좋아하는데, 곡 안에서 파도처럼 몰아치는 것의 정석 같은 곡이라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이 초록색 커버의 앨범은 스펠링의 디스코그래피에 수록된 곡들을 대중적인 편곡으로 다시 녹음한 버전인데, 개인적으로 이 버전이 실제 악기 소리가 좀 더 살아 있기도 하고 듣기 훨씬 좋더라고요. 정말 추천하는 앨범입니다.

공 : 앨범의 수록곡들 중에서도 "Always"를 특정하여 골라주신 이유도 있으실까요?

스 : 그냥 그 곡이 제일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일을 동물적인 감각 하나로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악기 이름이나 믹싱이 잘 되었는지의 여부도 잘 몰라요. 제 감상은 좋다, 안 좋다, 개 좋다 셋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리 있게 혹은 똑똑한 척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짐승 새끼처럼 살거든요.

하지만 그렇기에 저만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동물적으로, 직감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고른 이유를 설명하자면... 짐승 새끼가 들었을 때 너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네요.

생각으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몸이 저절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이 위와 더불어 제 몸이 반응한 곡이다라는 표현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공 : 몸이 저절로 반응을 하게 된 익스페리멘탈 팝 뮤지션 스펠링의 신보에 수록된 "Always"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저는 21년에 발매된 <The Turning Wheel>만 들어보았는데 이 버전으로도 한 번 들어봐야겠네요.

스 : "Always"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수록된 곡들도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커버가 예쁘잖아요. 저는 커버가 예쁘면 장르와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요.



세번째 질문

세번째 질문 : 나만 알고 있는 노래



Future - "If You Knew What It Took"

공 : 아무래도 초록색으로 비주얼라이징을 해서 그런지 시선을 확 끄는 게 있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나만 알고 있는 노래인데요.

스노비님은 본인만 알고 있는 노래로 어떤 곡을 선곡해주셨을까요?

스 : 여기가 멋지게 아는 척할 수 있는 섹션이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걸 아는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아는 걸 아는 게 진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건 그 이유가 보통 있더라구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솔직히 저는 50명이 듣는 뮤지션 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급이 있는 사람들이나 메인스트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명해진 사람은 유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퓨처(Future)가 짬짜 시절이었던 11년도에 발매한 믹스테잎 <Streets Callin>에 수록된 "If You Knew What It Took"을 답변으로 선정해보았고, 이 정도면 퓨처는 유명하더라도 웬만하면 새롭게 들으실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신삥 퓨처의 믹스테잎에는 훨씬 배고플 때의, 커리어 초기 모든 래퍼들의 특유의 한이 담겨 있고요. 지금 들으면 사운드에서도 싼티가 나오. 특히 드럼이 조금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 사운드가 주는 그 시대로 돌아가게 하는 감성이나, 지금의 사포로 삭삭 비벼서 부드러운 퓨처의 플로우와는 훨씬 투박했던 그 느낌이 좋아요. 그 시절 퓨처의 아픔, 투박함, 날 것의 매력이 이 믹스테잎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음악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만약 네가 안다면 날 그렇게 안 부러워 했을 걸?' 같은 남자들의 속앓이가 담긴 가사를 특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속으로 앓는 게 많아서, 공감이나 감정 이입하기에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공 : 아무래도 한국의 피가 흘러서 그런지 한을 좀 더 잘 표현한 것 같네요. 퓨처가 사포로 비비기 전, 약간 현무암처럼 울퉁불퉁했던 시절의 곡을 소개해주셨습니다.

퓨처가 지금은 워낙 유명한 래퍼이지만 신병 시절의 퓨처의 곡들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는 노래로 골라주신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스 : 솔직히 진짜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막말로 요즘 나오는 앨범들도 히트 싱글이나 타이틀곡 같은 노래들만 듣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수록곡 위주로 소개를 하는 편이기도 하구요.

공 : 저도 잘 모르는 곡이었는데 날카로웠던 시절의 퓨처를 맛볼 수 있는 점이 무척 재밌었네요.

이 곡을 소개해주시기 전에 누군가 유명해졌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스노비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탈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 : 우선 가장 큰 강점은 제가 굉장한 인터넷 키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거든요. 힙합 문화에서도 특정한 주제를 보면 한국 인터넷에서 봤던 소스들이 생각나는데, 아무도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만 재밌는 건가 싶어 호두아카이브를 만들게 된 거죠.

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사 번역이 주인 스노비 채널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유명해진 이유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기는 해요.

정말 죄송한 말일 수도 있지만, kendrick lamar의 "Control" 벌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악의는 절대 없지만, 저는 아직도 한국에서 저 말고 아무도 가사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깨가 무거워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뭐 짜증겠죠. 하지만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저는 '꼬우면 너가 하든가'의 결정체예요. 제가 아니꼬와서 하는 것들이 저를 만들었고요. 그런 제 자세가 아니꼬우시다면, 또 그 덕에 저처럼 멋진 업적들을 남길 다른 분이 생겨난다면 그것 역시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공 : 저도 스노비님께서 해주신 가사해석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한국 말로 읽었을 때 이렇게 매끄럽게 해주셨냐는 반응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댓글 많이 남겼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 모두 아카이브에 올라오는 짤들만 보더라도 무한도전이나 각종 유머 사이트에서 쉽사리 볼 수 있는 짤들을 힙합이라는 장르와 기가 막히게 합성하지잖아요?

그런 점들이 스노비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스노비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네요.

스 :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제일 찐따라서 제일 인싸가 됐어요.



네번째 질문

네번째 질문 :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



Jay Z - "Song Cry"

공 :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셨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인데요. 라이브 가시는 건 좋아하시나요?

스 : 막상 가면 정말 좋아해요. 근데 라이브 공연을 가기까지의 마음이 잘 안 서는 것 같아요.

별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것 같은데, 포스트 말론(Post Malone)의 공연도 막말로 18~19년도였으면 무조건 갔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딱히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갑니다.

공 : 최근은 라이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지만, 이 사람은 라이브로 한 번쯤은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아티스트가 있었을까요?

스 : 네, 있어요. 제이지(Jay Z)고, 워낙 유명한 곡이기도 한 "Song Cry"를 꼭 라이브로 한 번 듣고 싶어요.

이 곡의 MTV 라이브 버전이 음원으로 풀려있기도 하고, 제이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무대를 보는 관객 중 하나가 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애초에 2023년의 제이지의 위상도 그렇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시대의 감성이 절대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제이지가 한국에 올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무대라서 꿈처럼 느껴지고 더욱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구요.

라이브 음원에서만 나오는 현장으로 듣는 이들을 초대하는 듯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하거나, 재밌는 것들을 하는 이유는 잠깐 현실에서 분리되는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진짜 좋은 음악을 들을 때는 정말 잠깐은 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그 음악에 잠겨 있는 거죠. 그 순간들을 무척 좋아하고, 라이브 음원은 현장감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라이브 음원들을 들을 때는, 더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니까 특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공 : 제이지의 “Song Cry”를 소개해주시면서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음악에 잠시 잡기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제이지는 동부의 왕이라는 수식어가 있을 만큼 힙합 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래퍼기도 한데, 스노비님이 뽑는 제이지의 가장 좋은 앨범은 어떤 작품일까요?

스 : 이 곡이 포함된 <The Blueprint>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칸예 웨스트(Kanye West)를 좋아하는 이유는 소울 샘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거든요. 소울 샘플링은 옛 사람들의 혼을 빌려서 그 위에 새로운 혼을 얹고 아름답게 빚어내는 행위이며, 그게 힙합의 정수이자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The Blueprint>는 그 근본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해 준 고마운 앨범이니까 더욱 좋게 느껴지는 듯 해요.



다섯번째 질문 : 여행과 관련된 노래



B-Lovee, 2Rare - “Act Bad”

공 :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났기 때문에 미국 의회 도서관에 영구 보존될 음성 기록물로 남은 거겠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여행과 관련된 노래인데요. 여행 가시는 건 좋아하시나요?

스 : 여행 가는 건 좋은데 여행 때문에 돈 쓰는 건 진짜 싫어요. 그래서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소비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구요. 여행이라는 경험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하면 할 수록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조금 아른거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행에 20만원을 쓴다고 치면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LP도 3장 넘게 살 수 있고, 좋아하는 옷도 하나 살 수 있고.. 그건 남잖아요? 경험도 중요하지만 남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 : 여행에 관련된 노래는 어떻게 선곡해주셨나요?

스 : 실제로 여행 갈 때 들었던 노래로 선곡해보았어요. 비 러비 (B-Lovee)와 튜레어(2Rare)의 “Act Bad”라는 곡입니다.

이번 여름에 친구들과 계곡으로 여행을 가면서 차에서 들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구요.

우선 저지 클럽 특유의 거부할 수 없는 흥이 있는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 넘실대는 파도와 같은 멜로디컬한 트랙이라서 이걸 싫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이걸 싫어하면 시체예요.

저는 아직 면허가 없어서 운전은 친구가 했고, 선곡은 당연히 제가 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선곡을 제가 인정한 사람이나 제가 안 하면 저는 거품 물어요.

클럽도 저보다 선곡을 못 하는 것 같더라구요. 클럽 자체는 재밌는데 클럽에서 나오는 노래가 재미 없어서 잘 안 가요. 제가 집에서 라이브로 트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제 클럽이죠.

클럽에 가면 아직도 11년도 노래를 틀고 그러거든요. 2023년 9월에 발매된 좋은 노래가 얼마나 많은데..

물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곡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구닥다리인 것 같아요.



여섯번째 질문 : 취미와 관련된 노래



빅뱅 - "Always"

공 : 여행과 관련된 노래로는 “Act Bad”를 소개해주셨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취미와 관련된 노래인데요. 스노비님의 취미는 어떻게 되시나요?

스 : 제 취미라고 한다면 헬스나 독서 정도인 것 같아요. 게임은 하스스톤이나만 하고 있구요.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자면 법정 스님의 <텅 빈 충만>이에요.

최근에 다시 한 번 읽어보았고, 짧은 글들이 모인 법정스님의 일기장과 같은 책이에요.

본인의 에피소드와 그를 통해 느낀 바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겼고, '텅 빈 충만'이라는 제목처럼 보통 자세는 다음과 같아요.

자신은 아무것도 담지 않고 모두에게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넉넉하고 꽉 차 있는 사람이다... 같은 느낌의 책인데 저는 그걸 진심으로 따르거든요.

저는 웃이나 신발 같은 걸 제가 샀어도, 주변 사람들이 저보다 더 잘 어울릴 것 같으면 그냥 줘요. 왜냐면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 본명이 스님에서 따왔을 만큼, 어린 시절부터 불교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불교스러운 사상이나 마음가짐이 항상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영보이 네버 브로크 어게인(YoungBoy NeverBrokeAgain)이 지극히 불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스님의 이미지를 정말 인자하고, 깨끗하고, 웃은 나눠주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중국 쪽의 선불교 사상을 보면 오히려 인간을 부정하지 않고 가장 인간다움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 불교는 화가 나면 유풀거리를 하거나 몽둥이질을 하는 것 등 감정에 솔직해서 인간답게 행동하는 것 역시 어떠한 완전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화내면 화내는 것, 이거 완전 영보이 아닌가요. 애를 낳고 싶으니까 10명이나 낳아버리고, 릴 더크(Lil Durk)를 까고 싶으면 디스해버리고, 세상에 염증을 느끼면 인스타그램 계정 닫아버리고...

공 :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의 반응이 궁금해지네요. 독서 말고 또 다른 취미는 헬스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스 : 깔짝댄 걸 시작한 것으로 치면 9~10년?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정밀 열심히 한 적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최저점이 높은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할 수 있을 때 항상 하고 있습니다.

대신 1시간을 넘겨 운동을 한 적은 거의 없고, 꾸준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어요. 그냥 삶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공 : 헬스가 하나의 삶의 루틴이라고 말씀해주셨고, 취미와 관련된 노래는 어떻게 골라주셨나요?

스 : 제가 독서랑 헬스를 취미로 짜내기는 했지만, 짐작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제 삶에는 거의 음악 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 힙합 장르는 저의 가장 큰 취미이자 업이 되고 했구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힙합만 듣지는 않아요.

최대한 많은 음악을 듣고 있는데, 케이팝 장르는 일적으로 엮인 게 많이 없다 보니 이 쪽은 완전한 취미인 것 같아요.

힙합은 일이자 취미, 케이팝은 그냥 취미라고 느껴져서 취미로 잘 남아 있는 케이팝의 명곡을 하나 골라보았습니다.

2009년에 발매된 빅뱅의 'Always'이고, 짐승 새끼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인 트랙이에요.

가사도 정말 예쁜데, 후렴구를 보면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은 파래'라는 가사가 있는데 버디버디, 싸이월드를 즐겨하던 그 때 그 감성이 나서 너무 좋아요.

공 : 말씀해주신 것처럼 Y2K나 플라이 투더 스카이 감성이 물씬 느껴지네요. 빅뱅에서는 어떤 멤버를 제일 좋아하셨나요?

스 : 아무래도 GD가 한국 연예계의 레전드죠. 그리고 태양의 솔로 앨범들도 좋아해요.

특히 태양의 <Solar>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중가요 명반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애정하는 앨범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GD가 좀 더 아이코닉한 것 같네요.

공 : 케이팝은 본업과 관련이 크게 없어 온전한 취미로 즐길 수 있고, 이전의 감성을 잘 담고 있는 한국 아이들의 레전드 빅뱅의 "Always"를 취미와 관련된 노래로 골라주셨습니다.

여름이 끝나가지만 아직 더위가 살짝 남아있는 지금과 같은 날씨에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 앞서 스펠링과 마찬가지로 동명의 트랙을 선정해주셨네요.

스 : 아마 제가 무의식적으로 골랐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되게 일관된 사람이에요. 'Always'라는 제목과 마찬가지로 항상, 언제나 남아 있겠다. 제가 하는 일들도 남겨 놓는 것에 가깝죠. 제가 죽어도 문화가 남아 있는 거니까요.

아까 여행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행을 갔다 오면 남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거든요. 언제나 남아있는 것들이 저에게는 항상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 노랫말이 더 와닿는 걸 수도 있어요. 항상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건데, 그럼에도 항상 곁에 있어주겠다는 게 되게 아름답잖아요.

저를 쪽문가로 만든 앨범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걸 들으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미친놈 취급을 받았죠. 근데 그게 좋았어요. 남들하고 달라 보이니까.. 그 때 당시에는 힙한 척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척을 하고 싶어하는 자세를 아직도 못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일곱번째 질문 : 과거/현재/미래를 대표하는 노래



과거) Kanye West - "On Sight"

현재) Nas - "Dedicated"

미래) Frank Ocean - "Pink + White"

공 : '항상'이라는 것에 대한 스노비님의 생각을 선곡표와 관련하여 이야기해주셨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노래인데요. 세 가지 테마 전부 골라주셨을까요?

스 : 전부 골랐고, 과거부터 소개하자면 칸예 웨스트의 "On Sight"입니다.

제가 음악을 제대로 문화로서 듣기 시작한 게 이 앨범 덕분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10년을 만들어준 앨범의 첫 번째 곡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앨범을 들으면서 학교에서 음악을 잘 아는 척 하고 싶었어요. <Yeezus>를 감상한다는 건 음악 끝내주게 듣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실제로 했었고, 잘난 척하려고 시작했던 일종의 으스댐을 10년 하다보니까 직업이 되더라고요.

공 : <Yeezus>가 스노비님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씀해주셨고, 현재를 대표하는 노래로는 어떤 곡을 골라주셨나요?

스 : 현재는 나스(Nas)의 "Dedicated"를 골라보았어요. 나스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최근에 <Magic 3>라는 앨범을 발매했는데, 이 사람 지금 30년째 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스가 한 번도 빌보드 차트에서 몇 주씩 1위를 하고 그랬던 적은 없어요. 항상 최고에서 최고의 바로 아래 단계 즈음에서 놀았는데, 그걸 30년 동안 하니까 아무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없기 때문예요.

저는 끝까지 살아남는 게 이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 도파민에 미쳐서 계속 고점만 노리면서 활동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저 문화 안에 그릇에 담겨 있는 물처럼 있어야 돼요. 정말 이 한 몸을 바쳐야 되는데, 그건 웬만한 의지와 집념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처럼은 아무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처럼 진심인 사람은 없기 때문예요.

저는 이 문화 안에서 자존심 부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문화 위에서 흐르기 위해서는 누가 저를 욕해도 되고, 저를 못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하지만 처음의 저를 보고 욕한 사람들도 5년, 10년, 나스처럼 30년이 지나면 결국 인정할 거라고 믿어요. 그 때까지 살아남는 건 저 밖에 없을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나스의 "Dedicated"가 그런 자세를 행하고 있는 현재 그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나스도 최근에 랩을 하는 게 자기한테 어떠한 심리치료와 같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도 앨범을 내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어서, 여자에게 인기를 끌고 싶어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저도 돈 잘 벌고 싶고, 여자에게 인기 졸라 많고 싶죠.

하지만 그 위에 더 중요한 것, 문화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제 진짜 일이다 나스와 마찬가지로 심리 치료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저 스스로를 보듬는 거죠.

공 :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스는 최근 프로듀서 힙보이(Hit-Boy)와 함께 앨범을 여섯 장 발매했잖아요?
<King's Disease>부터 <Magic 3>까지 스노비님의 본능을 특히 자극한 앨범이 그 중에 있었을까요?

스 : 우선 <Magic>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은 <King's Disease 3>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거기 같아요.
“Dedicated”가 수록된 <Magic>은 피지컬로도 소장하고 있고, 한정반 바이닐이라서 그런지 일본에서 발매된 것처럼 꾸며놓은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주문했고, 바이닐은 스플래터 같은 재질입니다.

공 : 'No Trick, Pure Magic'이라는 멋진 문구도 적혀있고, 50의 나이에 꾸준히 씬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나스의 곡을 현재를 대표하는 노래로 소개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대표하는 노래는 어떤 곡으로 선정해주셨나요?

스 : 프랭크 오션(Frank Ocean)의 “Pink + White”로 골라보았어요.
제 채널에 <Blonde> 앨범 전곡 해석을 최근에 업로드했었는데, 그걸 보면 가사가 생각보다 심오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Pink + White”가 앨범에서 가장 대중적인 노래이지만, 가장 정수를 관통하는 가사를 담고 있거든요.

하늘과 땅이 어떻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없고, 지난 날이나 가끔씩 추억하고, 오늘을 살 때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땅에, 자연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뽀뽀도 좀 하구요.
내일 정도는 살아있을 거니까, 그걸 감사하고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제가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종2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으로 트라우마에 가까울 정도로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오늘에 집착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에요. 왜?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가장 오늘인 상태로 죽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미래란 그냥 내일인 거고, 내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노래와 똑같기 때문에 미래를 대표하는 노래가 이 곡일 수 밖에 없어요.

공 : 스노비님의 말씀을 듣자하니 “Pink + White”가 불교스럽게 들리는 건 제 기분 탓일까요?

스 : <Blonde> 전곡해석 영상과 함께 들으면 정말 더욱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지도 몰라요.



이미지 클릭 시 스노비님의 Blonde 전곡해석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질문 : 인생 곡 혹은 인생 앨범



인생 곡) The Weeknd - “Out Of Time”

인생 앨범) 유재하 - <사랑하기 때문에>

공 : 틈새 홍보도 해주셨고, “Pink + White”的 가사와 스노비님의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미래를 대표하는 노래로 소개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본인의 인생 곡 혹은 인생 앨범을 소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 : 둘 다 골라보았고, 인생 곡 먼저 소개하자면 더 위肯드(The Weeknd)의 “Out of Time”이에요.

가사 자체도 제가 지금껏 이야기했던 결과 비슷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노스탤지어적인 내용인데, 인생 곡으로 고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인생 곡이라는 걸 고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단순히 과거고, 내일은 내일이고, 있는 건 당장 오늘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감명 깊게 들은 게 굳이 따지자면 인생 곡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데이터 상으로 제 애플 뮤직 계정이 2022년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가장 많이 들은 노래가 이 곡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솔직하게 알려주는 인생 곡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1년 반 동안 제일 많이 들은 곡이면 합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위肯드와 칸예 웨스트라는 아티스트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구요.

공 : 보통 칸에 웨스트와 프랭크 오션을 세트로 골라주시던데, 프랭크 오션이 더 위켄드와 같은 활동량을 보여주었다면 스노비님의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스 : 저는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칸에 웨스트, 더 위켄드, 드레이크(Drake)가 GOAT인 이유는 매년 뭔가를 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GOAT인 이유는 저는 3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제 채널 업데이트를 단 한 주도 쉰 적이 없어요. 호두아카이브는 지금도 매일같이 업데이트되고 있구요.

결국 아무리 누가 고점이 높던 간에 저처럼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겨요.

그건 저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매일 했거든요.

토리 레인즈(Tory Lanez)가 10년 형을 받은 걸 보면 느껴지지 않나요?

결국에 그렇게 끝날 거면 모든 게 다 부질 없잖아요.

언제나 오늘처럼 계속 살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 잘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대신 지금까지 우상향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내려갈 일이 없길 바랄 뿐이죠. 왜냐면 우상향이기만 하면 50년 있으면 제가 GOAT고, 그 때 그냥 누리면 돼요.

그 우상향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건 결국은 제자리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무조건 완만한 우상향인 주를 골라요.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완만한 우상향으로 만들고 싶네요.

공 : 한국대중음악명반 1위를 차지한 작품이기도 하고, 유재하가 보컬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느껴지는 감성들이 사람의 마음 속으로 파고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유재하를 이렇게 아이코닉하게 만든 건 앨범 발매 이후 비운의 사고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스 : 힙합에서 말하는 야마가 있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레전드가 되기까지 피할 수 없는 서사였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의 시작과 끝을 함부로 평가해선 안 되겠지만요.

공 : 인터뷰 내내 오늘만 바라보고 사신다고 하셨는데, 인생 앨범의 가장 좋아하는 곡은 “지난 날”로 골라주셨네요.

스 :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날을 자꾸 잊어요. 제가 매일 뭔가를 기록하고 아카이빙하고 남기는 이유도 항상 잊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가 남긴 걸 보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진심으로 어제와 내일도 없고, 오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일은 내일이 되면 그때 할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지나가버린 어제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 안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최대한 다 남겨놓은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창고를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보고 있는 정도이지, 사실 본질적으로 절 위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내친 김에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좋아해 주시니까, 보기 좋게 포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 : 우상향이 결국 GOAT가 된다고 말씀해주셨고, 인생 앨범은 어떤 작품으로 골라주셨을까요?

스 :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로 골랐어요. 바이닐이 나온 당시에는 군 적금으로 먹고 살았어야 돼서 구경만 하고 사자는 않았습니다.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은 “지난 날”이고, 이 앨범은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이나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 자체가 실례라고 생각해요.

그냥 들으면서 ‘이거지..’하면서 눈물이 났던 몇 안 되는 앨범 중 하나고, 한국인이라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힙합만 들었으면 이런 앨범을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Outro : 인터뷰 참여 소감

공 : “지난 날”과 관련해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스노비님의 인생 앨범으로 골라주셨고, 오늘의 인터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직접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 :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힙합엘리에 근무를 하면서 18년도부터 21년도 가을까지 국내 아티스트들의 인터뷰를 많이 진행했었어요.

수많은 아티스트들과의 인터뷰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게 되게 많거든요. 인터뷰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의 소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잠시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흡수한 에너지 덕분에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정수를 흡수해서 저만의 무언가를 만들었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터뷰에 참여하는 그림도 재밌고, 시간을 내서 찾아주신 거잖아요.

그런 점들이 하나하나 영광이고, 앞으로 더욱 많아지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보니 너무 감사한 기회였어요.

아마 나중에 돌이켜보았을 때 제 몇십 년짜리 계획의 좋은 초반부 기억 중에 하나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여러 명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또 그들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좋은 영향을 받았듯이 이제는 다른 분들이 저에게 좋은 영향을 받을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제 계획이 완성돼요. 대한민국의 이 바닥에 제대로 된 문화를 이식하는 과정에 있어 저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거든요.

지난 5년간 해왔던 것들이 사람들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걸 저 스스로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의 5년, 50년은 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연을 퍼뜨리는 걸 시작할 때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아실 거고, 저만 진심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꼭 플레이어일 필요는 없어요. 저도 래퍼가 아니잖아요? 래퍼는 정말 많은데, 이 문화를 진짜 퍼뜨리고 전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플레이어들끼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더 똑똑하고 문화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도 돈이 되냐, 먹고 살 수 있겠냐고 물잖아요?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런 사람은 되는구나, 나도 해볼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계속 할 거예요.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제 손등에 적혀 있는 行이라는 한자처럼, 진짜 명청하게 그냥 해야 돼요.

지금은 안 하지만, 저도 예전에는 이거 해서 과연 돈이 될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변에서도 지금 너가 하는 일이 뜻밖의 거냐, 상견례할 때 괜찮겠나?라는 딴지 거는 질문도 많이 받았구요. 저는 그런 것에 있어서 '몰라, 닥쳐'로 일관했어요.

하나 확실한 건, 진심은 절대 삶을 저버리지 않아요. 진심은 모든 것에서 통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든 진심을 가지고 부지런하다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인지는 제가 5년 동안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50년 동안은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걸 직접 보여줄 예정이구요.

그래야 사람들이 되는 줄 알고 시작하지, 지금은 다 쫓아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힙합으로 살아도 되는지 다들 쫓아 있어요.

이해해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을테니까. 보여드리면 되죠. 따라오시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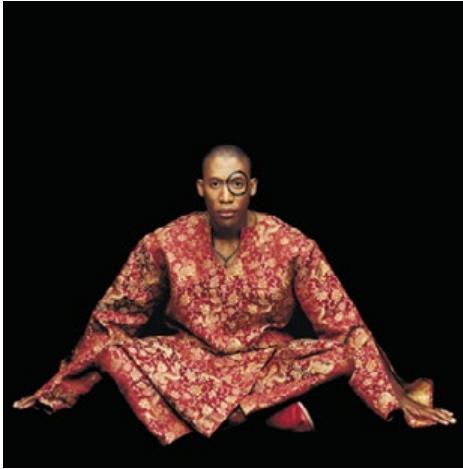
공 : 스노비님께서 이 문화에 얼마나 진심인지와 부지럽고 진심인 사람은 결국에 성공한다는 철학도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무런 보상 없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가끔 지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스노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영향을 받아가게 되네요.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Editors' P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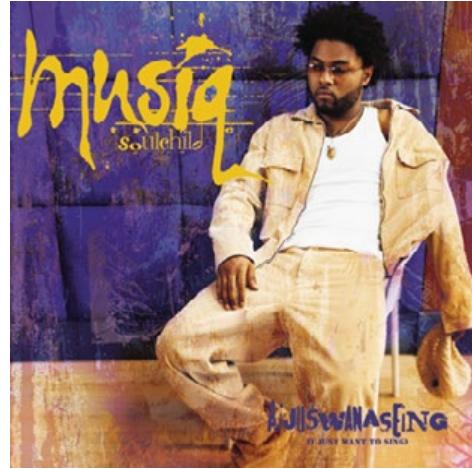
에디터들이 선정한 앨범과 추천 트랙.



Instant Vintage

Raphael Saadiq

1. Doing What I Can	7. Excuse Me	14. Make My Day
2. Body Parts	8. Charlie Ray	15. Blind Man
3. Be Here	9. Different Times	16. Tek 2
4. Still Ray	<u>10. Tick Tock</u>	17. Uptown
5. OPH	11. People	18. What's Life Like
6. You're The One That I Like	12. Tek 1	19. Skyy, Can You Feel Me



Aijuswanaseing

Musiq Soulchild

1. Scratch Introlude	7. Love	13. Poparatzzi
2. Girl Next Door	8. My Girl	14. Settle For My
3. You And Me	9. Musiq Soulchild - Love	
<u>4. Just Friends</u> (Sunny)	Interlude	15. You Be Alright
5. Mary Go Round	10. Seventeen	16. Aime Wit Ue
6. 143	11. L' Is Gone	- International
	12. Speechless	Bonus Track

라파엘 사디(Raphael Saadiq)의 <InstantVintage>를 들을 때면 항상 의아한 순간이 존재했다. 제목에서 드러난 것처럼 현대적인 불량식품을 섭으면서도 괜히 아련한 옛 향수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느낌 말이다. 과거 소울 그리고 평크 음악들, 심지어 힙합까지 재해석하면서도 당대 기준으로는 현대적인 베이스 라인들과 오케스트라적 시도로 접근한 그의 노래들이 묘하리만큼 귓가를 맴돌았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횡단보도를 걷듯, 그의 음악은 그 횡단보도의 어딘가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 아마 당시 라파엘 본인도 일생의 정체성을 "Gospedelic"이란 호칭으로 정리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들의 교차로에 머물며 네오 소울이라는 이름의 무기로 해답을 찾지 않았을까. 종종 그가 어떤 지점을 노리려 했는지 어렵잖이 보이는 기분도 들면서도 묘한 감상이 남았다. 결과적으로 그가 시도한 평키하고 그루브한 소울 음악은 적어도 내겐 성공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견고하고, 훌륭하게 이뤄진 과거를 재해석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찾은 불완전 속의 개성을 싫어하긴 어려웠으니까.

추천 트랙 : Tick Tock

2000년 1월, 디 안젤로(D'Angelo)가 <Voodoo>를 발표하면서 네오 소울의 정점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면, 당해 11월에는 잔잔하게 휘몰아치는 그루브로 네오 소울 장르에 이지 리스닝의 감성을 한 스푼을 섞은 듯한 뮤직 소울차일드(Musiq Soulchild)가 등장한다. '나는 그냥 노래 부르고 싶다'라는 문장을 얼핏 보았을 때 의미 없는 알파벳의 나열처럼 보이게 한 뮤직 소울차일드의 데뷔 앨범은 올드스쿨과 얼터너티브 알앤비/소울 장르의 과도기를 가장 잘 대표하는 앨범 중 하나이다. 흑인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자아내는 그루브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메가 히트 넘버인 "Just Friends (Sunny)"나 "Love"의 임팩트도 상당한 편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후반부에 휘몰아치는 팔세토 애드리브는 그가 단순히 그루브로만 승부하는 것이 아닌 훌륭한 보컬 테크닉을 가지고 있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예시이다. 하지만 파도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명해지듯, 일정한 흐름으로 이어가는 앨범 구성은 후반부에 다다랐을 때 조금 쳐질 수 있다는 단점을 내포한다. "Settle For My Love"부터 보너스 트랙 "Aime Wit Ue"까지 전부 5 분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노래 부르고 이야기했듯, 이런 음악에는 그저 몸을 내던져 맡기고 싶을 뿐이다.

추천 트랙 : Just Friends (Sun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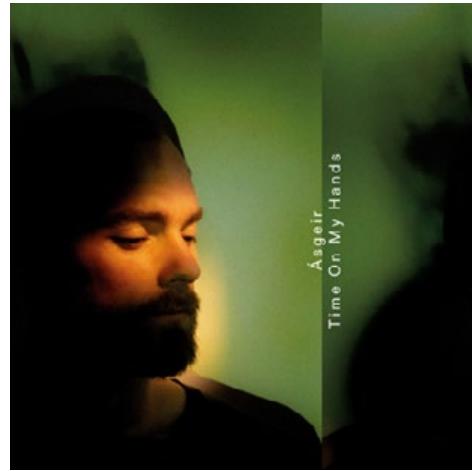


You Can Fly On My Aeroplane
Wee

1. You Can Fly On My Aeroplane	9. Aeroplane (Reprise)	14. Trying to Tell You How I Feel
2. Leavin' You Alone	10. Try Me (45	15. I Luv You
3. Put It In Real Good	Version)	16. We Could Get It
4. Alone (Reprise)	<u>11. Teach Me How</u>	Together
5. I'm All Changed	12. Stay	17. Do You Know
6. Alone	13. I Want To Show	18. I Don't Know
7. Find Me, Love Me	You	About You
8. Try Me		19. I Think I Am In Love With You

"Bound 2"의 장엄한 선율, "Cataracts"의 압도적인 청량함, "Scottie Beam"의 나른한 피아노 연주, <Endless>의 5번 인터루드 트랙까지, 이 모든 것이 한 앨범으로부터 추출되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Wee의 1977년작 <You Can Fly on My Aeroplane>은 그 적은 인지도에 비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에겐 상당히도 사랑받는 음반이다. '소울 고전작'이라는 타이틀이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부흥시키는 가운데, 본작의 실제 음악성은 그 기대마저도 아득히 능가한다. 소울 특유의 부드러움과 농밀함이라는 장르적 강점을 유지한 데 더불어, 스티비 원더의 영향이 느껴지는 신시사이저 연주로 사이키델릭의 속성을까지도 부여받는다. 혁신적인 수준까진 아니나 분명 미래적이다. 비록 그룹의 끝이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이 고전 음반의 가치만은 영구 보존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추천 트랙 : Teach Me How



Time On My Hands
Ásgeir

1. Time On My Hands	7. Like I Am
2. Borderland	8. Waiting Room
3. Snowblind	9. Golden Hour
4. Vibrating Walls	10. Limitless
<u>5. Blue</u>	
6. Giant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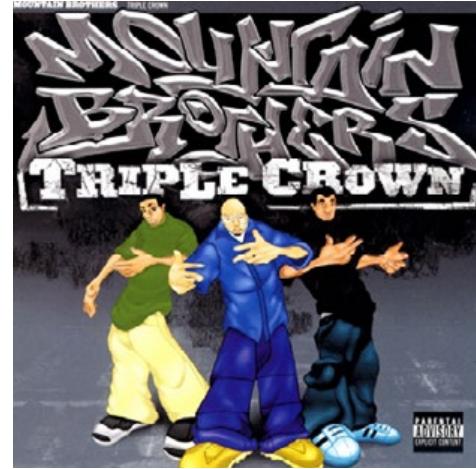
아이슬란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Ásgeir (아스게이르)의 정규 5집 앨범으로 기존에도 포크와 일렉트로니카의 교집합인 포크트로니카를 선보였던 그가 더욱 본격적으로 '포크'보다는 '일렉트로니카'에 무게중심을 두고 만든 앨범이다. 이 앨범의 인상적인 초반부가 지나가면 한층 차분한 사운드로 이어지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때에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은 아스게이르 본인이었다. 아스게이르는 편안히 부른 보컬로 그 감정을 '황홀함'으로 바꾸어 내는데에 성공한다. 팬데믹이 심했을 시점, 아스게이르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게 되었고 그 시간이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앨범은 역설적인 면을 가지기도 했는데 편안하지만 어딘가 모를 우울함이 느껴지곤 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지만 동시에 차갑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이 앨범이 좋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 앨범이 가진 아이러니도, 모두 아스게이르의 것이었다.

추천 트랙 : Blue

**About A Boy**

Dream, Ivory

- | | | |
|--|------------------------------|---------------------|
| 1. Smoking Up The Sickness | 5. Kids | 11. I'm So Emo |
| 2. Wake Up! | 6. Isn't It Obvious | 12. Playing Pretend |
| 3. Sensory Overload | 7. Boyhood | |
| 4. Everyone Is Something (Nobody Is Nothing) | 8. Tastes Like Candy | |
| | 9. M.O.V.E. O.N. | |
| | 10. Would It Kill You At All | |

**Triple Crown**

Mountain Brothers

- | | | |
|---------------------------------------|-----------------------|-----------------------|
| 1. MBs Are Back! | 6. Mike 'The Mangler' | 13. Beaterlude II |
| 2. Microphone Phenomenal | 7. Badbassicks | 14. Yes Yes |
| 3. I'm Talkin Bout YOU!! | 8. The Roli Rho Show | 15. Madness |
| 4. The General' J.T. Grant and Ronnie | 9. The General' J.T. | 16. Beaterlude III |
| Grant and Ronnie | Grant and Ronnie | 17. Birds of Paradise |
| 'Rumble' Jackson | 'Rumble' Jackson | 18. The BarberCHOPS |
| Pt. 1 | Pt. 2 | Quartet |
| 5. Hostile Takeover | 10. Peril-I Universe | 19. Opin Wide |
| | 11. Beaterlude I | 20. Thanatopsis II |
| | 12. Can't Miss | 21. Forest Gumption |

사운드클라우드, 유튜브를 통해 본인만의 어두운 감성을 선보이며 고정적인 팬층을 형성한 프로듀서 진셍(ginseng)은 릴 윈터(Lil Wintr), 드림, 아이보리(dream, ivory) 등 다양한 얼터 이고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동생과 함께 팀을 이룬 얼터너티브 락 밴드 드림, 아이보리에서는 프로듀싱과 기타, 드럼 연주를 맡으며 활동 중이다. 꿈이 인간의 무의식을 간접적으로 비추는 것처럼, 드림, 아이보리의 첫 정규 앨범 <About A Boy>에서는 다양한 사운드 연출을 통해 emo한 느낌의 팝 락 밴드의 감성이 잘 드러난다. 루이 바엘로(Louie Baello)의 텁텁한 보컬과 먹먹한 믹싱, 무거운 느낌의 베이스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렉 기타 멜로디라인이 어우러져 한 소년의 발랄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음울한 일상을 엿보는 듯한 느낌이 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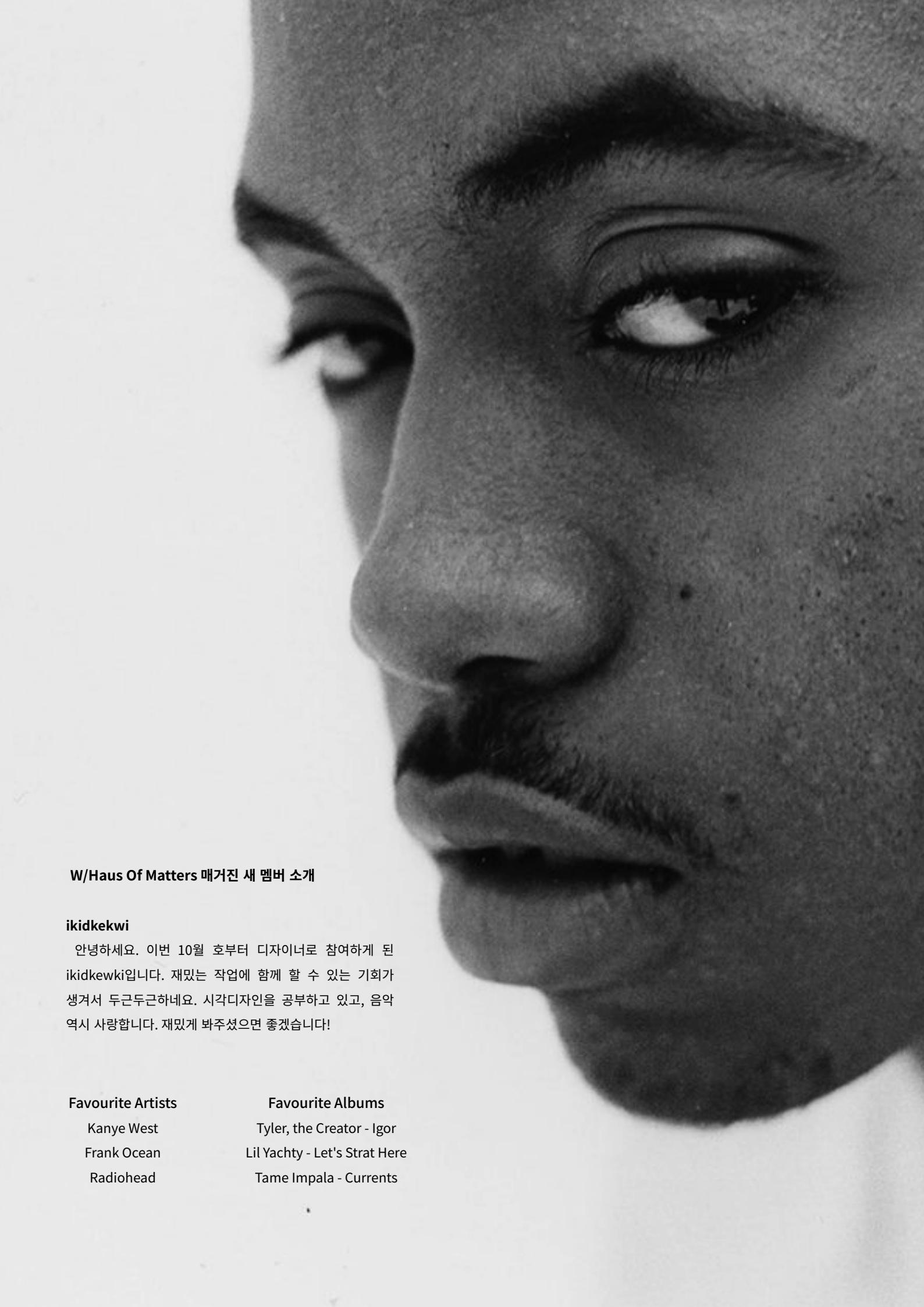
항상 달콤한 꿈을 꿀 수는 없는 것처럼, 앨범은 잔잔함과 산뜻함을 오가며 진행되지만 후자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후반부가 보다 인상적이다. 그들이 보여주는 아이보리 빛 꿈결 속으로 들어가보자.

(P.S. 올해 발매된 (Naked) 버전으로 감상하면 산뜻함이 빠진 감성 넘치는 꿈의 형상을 감상할 수 있다.)

추천 트랙 : Wake Up!

최고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최초는 불변한다. 바로 마운틴 브라더스(Mountain Brothers)가 그렇다. 그들은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힙합 트리오라는 기념비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빛나는 건 커리어이다. 두 장의 앨범만을 발매한 후 해체를 선언한 이들의 짧고 굵은 행보 중 가장 애착이 가는 건 역시나 두 번째 정규 <Triple Crown>이다. 2000년대 블루스 스타일을 고집한 찰스의 평키한 비트와 페럴-엘, 스타일스가 내뱉는 러프한 운율의 랩핑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적절히 융화돼 있다. 또한 중간중간 가미된 스크래칭은 뚜렷한 감흥을 선사하는데 이는 특히 라킹(Rakim)의 구절을 샘플링한 “Microphone Phenomenal”에서 두드러진다. 물론 이처럼 돋보이는 연출을 뒤로하고 전반적인 구성 자체만 본다면 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깊이가 남다르다. 결국 마운틴 브라더스는 담백한 질감의 클래식이라는 성과를 제시해 냈다.

추천 트랙 : Microphone Phenomenal



W/Haus Of Matters 매거진 새 멤버 소개

ikidkekwi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호부터 디자이너로 참여하게 된 ikidkekwi입니다. 재밌는 작업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두근두근하네요. 시각디자인을 공부하고 있고, 음악 역시 사랑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avourite Artists

- Kanye West
- Frank Ocean
- Radiohead

Favourite Albums

- Tyler, the Creator - Igor
- Lil Yachty - Let's Strat Here
- Tame Impala - Currents

Credits.

Recently Released

ryuzimoto

앞날

45

Indie Aisle

Full-Length Review

온암

SongChico

EastBirt

Classic Album

온암

45

Free Topic

45

SongChico

온암

Zoomterview

공ZA

Snobbi

Editors' Pick

앞날

공ZA

SongChico

온암

ryuzimoto

Design

ikidkekwi

월드 하우스 오브 매터 10월호 마침.

All Image Right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

매거진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해당 소유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HAUS OF MATTERS